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2010년 1월 Vol.189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새해 첫 날 일리노이의 Winnetka Lakeshore 에서 바라본 Michigan 호수의 일출장면. 마치 거대한 활화산의 불덩어리가 호수 속에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사진= 김중규 작가 제공. Focal Length 2400mm >

소통을 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올해 '브레인 퓨전' 프로젝트에 20억원의 연구지원금을 책정했지요. 2개 이상의 단과대, 3개 이상의 교수가 참여해 융합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20개 연구팀을 뽑아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합니다."

-법인화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정적인 논란도 있는데요. "법인화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지적들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스스로가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난해 교수와 교직원을 30명 증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무원 동결' 방침 때문에 무산됐지요. 정부 승인이 안 나서 몇 년째 국제처도 못만들고 있어요. 아뭏든 법인화되면 대학 구성원이 더 바빠지고 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대의 변화

- ▶외국인 교수: 47명→142명
- ▶외국인 학생(학부생 기준): 580명→751명
- ▶세계 대학평가 순위(The Times): 63위→47위
- ▶부교수→정교수 승진율: 72.8%→42.0%

'노벨상 프로젝트' 본격추진

세계석학 교수채용, 학과별 무한경쟁 두뇌확보·두뇌유지·두뇌융합 시책

모교 이장무 총장은 새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계 초일류대 진입' 과 '노벨상 프로젝트' 에 대해 본격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모교가 세계 일류대 거점확보를 위해 시동을 건 이른바 '노벨상 프로젝트' 의 구체적 추진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를 요약해 게재한다.

-노벨상 프로젝트의 구체 시안은 어떤 것인가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우선 세계 최고의 교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각 학과 학생 수를 고려해 교수 정원을 할당하던 기존 개념을 없애고 더 우수한 교수를 모셔오는 과에 채용 우선권을 주는 교수채용 무한경쟁 시책입니다."

"최근 세계대학 종합평가에서 47위,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판도 조사에선 세계 25위를 했어요. 불과 2004년만 해도 100위권이었는데 위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취임시 2025년 세계10위권 목표를 세우며 민망해 했는데,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학문 분야 발전을 위해 '노벨상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최근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을 보직교수들과 상의했어요. 이른바 '3B 전략' 이죠. 학과별 경쟁을 통해 우수 교수를 유치하는 '두뇌 확보(Brain Gain)' 사업, 우수 교수에게 더 나은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두뇌유지(Brain Sustain)' 사업, 교수들이 학문간 벽을 허물게 하는 '두뇌 융합(Brain Fusion)' 사업이 그것입니다."

-석학교수 채용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파울 크루첸 박사 등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수준의 석좌교수를 지난 2008년부터 100명 이상 초빙해 왔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시범 실시했는데 신청이 쇄도, 정종경(분자세포학)박사 같은 스타 교수가 10명 정도 뽑혔지요. 올해는 30명 가량을 정점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실적이 좋은 교수는 어떻게 우대할 계획입니까?

"임지순(물리학) 교수를 지난해 석좌교수로 채용했어요. 올해는 현택환(화학생물공학부)교수와 김빛내리(생명과학부)교수 등 40대 두 명을 신진

석좌교수로 선발했습니다. 연구공서열을 중시하던 대학에 이 같은 개혁은 큰 충격일 것으로 봅니다."

-학문간 융합은 거대한 트렌드 같습니다만.

"학문간 벽이 낮아지고 서로

미주 11개 지역 동창회장 교체 신년 각종 사업계획 준비중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미주 11개 지역 동창회에서 신임 회장단이 취임해 각각 포부를 밝히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이번 연초에 새 회장단이 업무를 시작한 지부회의는 샌디에고·뉴욕·워싱턴D.C·시카고·미네소타·워싱턴주·하와이·하블랜드·로키 마운틴스·온타리오·밴쿠버 등의 지부다.

미주 동창회보 편집실은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의 새해 포부, 2010년 사업계획(행사 일정), 새로 구상중인 주요 사업 등을 파악해 회보에 보도하기 위해 연초에 각 회장단에 e메일을 발송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20일 현재 9개 지부 회의에서 응답해와 소수에 불과한데, 아직 신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역 동창회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역 동창회의 금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대략 골프대회·야유회·연말 파티 등 예년 수준의 회원 친목 행사들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사업·세미나·전자 회보 발간 등을 새로 기획하

고 있다. 이들에 관해 소개한다. [관련 기사 3페이지]

PRSR STD
NON 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시사 특집

2010년 경인년 민족사적 안애 4~5면
마틴루터킹 목사와 미국 인권법 6~7면

신년사

총장·총동창회장·미주동창회장



이장무 총장

최근 우리 서울대학교는 'The Times' 세계대학 평가 47위, '에플데인' 글로벌 CEO매출 세계 5위, SCI 우수 과학기술 논문발표 세계 24위에 오르는 등 세계 대학평가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동문 선후배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 여러 부문에서 모교의 영예를 드높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 선후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대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배들은 관악 캠퍼스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2천500여 외국인 유학생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자녀들은 서울대를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초일류 대학으로 자랑스럽게 바라

볼 것입니다. 친애하는 서울대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러나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의 도약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대는 법인화, 차세대 융복합 학문 분야 강화, 초일류 글로벌 인재육성 등 당면한 도전과

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왔던 우리 서울대 동문들의 힘과 지혜를 믿습니다. 넉넉한 추수를 위해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는 농군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실천에 동문 모두가 하나같이 나선다면 세계 10위권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추운 겨울에 몸 건강하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연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2025년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초일류대학으로 바라볼 것

임광수 총동창회장

견인불발(堅忍不拔)이라는 말처럼 새해는 33만 동문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품었던 소망들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는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성큼 도약하면서 동창회가 국내외 많은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속에 어느 때보다 모교 지원에 큰 역할을 한 보람되고 값진 해였습니다. 자랑스런 모교가 세계 대학들로부터 찬사를 들었습니다. 세계 CEO매출 5위에 랭크됐고, 영국 The Times 선정 세계대학 순위47위를 기록하며 20위권 단과대학도 많이 나오는 등 세계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이장무 총장께서 법인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성공적 성과입니다. 모교 구성원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될 모교 법인화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동문들은 성심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는 "사려깊고 헌신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동문 개개인의 뜻이 모여 대의를 위한 때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큰 꿈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영원히 자리잡고 있는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귀한 가치가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교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한해로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시기에 총동창회도 모교가 세계명문대로



도약함에 우리 교사(校史)를 바로 찾아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해 지난 1년 간 철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정통과 정체성-서울대 개교원년,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 라는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국내의 주요대학의 개교원년과 근·현대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본 해 일만 명에 이르는 수 있습니다.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너무 짧은 역사와 전통이 세계 명문대 10위권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난 2007년 6월 착공한 국내 최대 서울대총동창회 장학빌딩은 연말 완공돼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100~200년후에도 자랑스런 모교 지원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학빌딩 완공과 더불어 올해 총동창회가 추진할 각종 행사도 최선을 다해 동문에게 유익하도록 내실있게 치르고 매월 12만부 발행 동창회보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품격있는 회보가 될 것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훌륭한 성취를 하게 한 동창회 임원들과 각계 동문들의 참여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조국과 민족앞에 책임을 다하는 서울대인이 됩시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의인(義人)을 돕는, 지혜와 능률한 기품을 상징합니다. 동문 모두 더욱 더 긴장한 가운데 호랑이처럼 물러섬이 없는 용맹과 관대로 모교 발전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 봉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살아 민족에 책임 다하는 서울대인 돼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주필 : 이윤모(농) 논설위원: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재홍(NY) 백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택(SF) 장성정(CH)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편집장: 이기준

송순영 미주 동창회장

모교 이름에 손색없는 동창회로 계속 발전시켜야겠다는 신념으로 미주 동창회를 인수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동창회 인수직후, 역사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운영에 어떤 애로가 있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동창회보의 정기 발행이 순탄할지, 또한 이에 따르는 재정적 문제 등 불안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집부와 임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동창회보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뜻있는 많은 동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기임에도 어느 때 못지 않게 적극 동창회비 및 관악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헌신적인 편집부와 임원진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창회 준비작업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동안 절실히 느낀 것은 동창회 본부 사무실을 어느 한 곳에 영속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동창회보도 전문 인력에 의해 일관성있게 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상당한 경비절감이 됩니다. 2년마다 회장단에 따라 옮기는 사무실과 새로운 설비에 많은 경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동창회 본부가 한 곳에 유치되면 동문 수가 많지 않아 회장직 감당이 어려운 지역 동창회에서도 회장이 선출돼 총 동창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창회 본부의 한곳 유치,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더 확고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문 Brain Network의 기초 작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동문들의 두뇌자원을 분야별로 조직화해 모교의 세계경

상 대학 위상 제고 과업과 한국 선진화 과업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단거기로 이 Network 동문들에게 동창회보 기고를 장려하고, 모교발전에 도움되는 의견 교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 사정이 되면 분야별, 또는 전체적 Workshop도 개최할 것입니다. '서울대 인이 가야 할 길'의 선비의 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는 동창회로서는 최소한 Brain Network의 구성과 역할을 사업의 중요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대 LA분교의 발전 과정에서도 미주 동창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경제난이 극심한 2009년에도 동창회 운영에 지장없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동창회 지원에 참여치 못한 동문들께서도 동참해 주신다면, 동창회는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 총동창회가 보람있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뚜렷한 모습을 보일때 후배들도 관심을 두고 참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동문 개개인의 정성 어린 협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두시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교에도 손색없는, 미주 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각 가정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브레인 넷웍' 작업 계속 진행 중 동문 개인 협조가 큰 결과초래

이번 호의 주요 내용

- 2. 총장·총 동창회장·미주동창회장 새해 인사
- 3. 지부회의 회장단 새해 인사, 사업계획
- 4~5. <특집> 2010년은 민족사적 한 해
- 6. <특집> 미국의 민권운동

- 7~8. <특집> 미국 민권, 1964년 민권법
- 9. 재정계획, 개정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
- 10. 동문광장, 논설·시·수필
- 11. 동문광장, 지부회의 회장단 새해 인사·사업계획
- 12. 여행수기: 일본관광을 다녀와서
- 13. 고국의 동문동정, 수상·인사·행사

- 14. 음악칼럼, 팝송이야기 <4>
- 15~18. 지역 동창회 소식
- 19. 미주 동문동정, 금촌·대잇기·부음
- 20~22. 동창회비 납부현황
- 23~29. 미주 동문 입소록
-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 31. 광고, 평의원 회의 소집 안내

지부회의 회장단 새해 인사·사업계획

새해를 맞아 각 지역 동창회 지역 회장단의 새해 포부, 사업과 행사 계획들을 모아 동창회보 1월호에 소개합니다. 편집실에서 금년초에 보낸 e메일에 최신 내용을 정리하고 회장단이 교체된 경우 신임 회장단 명단을 소개합니다.

내용은 응답한 순서로 게재했으며 응답하지 않은 지역에서 추후 제보를 하면 차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지부회의 추가 소식은 본 회보 15~18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편집실]

워싱턴주 동창회

[시애틀 김재훈]

송순영 회장님을 비롯하여 미주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시애틀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경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로 저는 2년간의 임기를 마쳤으며 신임 회장단과 평의원 명단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틀랜드 동창회

[동창회장 배규영]

2010년에는 각 quarter에 e-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지역 내 6개 주 (AK, IA, KS, MO, NE, OK)의 동창들에게 e메일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1호가 나갔고 오는 1월 31일에 제 2호가 발행됩니다.



올해는 지역내의 동문들 주소 업데이트를 우선 준비해서, 지역내의 동문들 동정(적게 준비속의 각종 조사 포함), 지역 사회

내에서 장학사업 계속,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심적, 물질적인 협조에 동참토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만복이 깃드는 경인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Kiyoung Bae, Ph.D., Tel: (913) 709 2335, Fax: (816) 525 4020 (www.kumonbae.com)

북가주 동창회

[동창회장 홍성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 해를 시원하게 보내고 힘차고 희망에 찬 경인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서울대 동문들의 가정과 사업에 많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대 미주 총 동문회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송순영 회장님, 김정주 사무총장, 이윤모 회보 주필 등 미주 총 동문회 임원진,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던 이진구 전임 회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가주 동문회에서는 지난해에 못했던 여러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동문들과 그 가족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계획

▶봄 산행 (4월 or 5월): Mt. Diablo, Contra Costa County, ▶여름 음악회 (8월): Herbst Theater, San Francisco ▶폴프 대회 (10월): Castlewood Country Club, Pleasanton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Castlewood Country Club, Pleasanton.

2010년도 임원단

▶이사장=황만의 (사대 59), maniks@gmail.com

▶회장=홍성제 (치대 69), sjhong@pacbell.net

▶부회장=이장우 (문리 72), stevensflow@yahoo.com

▶총무=김기현 (사대 75), gideon@80square.com

미네소타 동창회

[총무 변정민]

저희 미네소타 동창회는 이번에 새로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15페이지 저희 미네소타 동창회 송년 모임 소식으로 대신하는 바입니다.

시카고 동창회

[회장 이영우]

2000년을 맞이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 new decade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침체로 불안했던 한해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으로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신념, 새로운 각오로, 동문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010년 시카고 동창회장직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동창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역대 회장님들이 헌신적인 봉사로 28년간 열심히 추진해오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동창회가 당면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봅니다.

연례행사로 진행 되어온 봄, 가을 두번의 이사회, 하계 Picnic, 춘계, 추계 폴프대회, 연말 파티 및 총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겠으며 이번 6월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 총동창회도 착오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가을에 미대 동문들의 작품전시회를 계획 중이며, 또한 동창회에서 모르는



서울대 동문들, 그리고 젊은 관악 연대들이 동창회에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발해서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선후배간에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목적하에 새로이 Membership Committee를 조직하여 단과대 회장을 중심으로 동창회에서 모르는 동문들을 특별히 초대하는 Program, 젊은 동문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사인 자녀교육을 위한 Seminar로 '지혜로운 자녀교육 workshop'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든 단과대 동문들이 함께 뭉쳐 친목하는 시카고 동창회는 앞으로도 계속 알차게 발전할 것을 굳게 믿으며, 동문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계획

▶임원회 4회 ▶Newsletter 4회 발행 ▶이사회 2회 (3/13, 10/16)

▶노재욱 동문 사진전 (4/10-4/31) ▶지혜로운 자녀 교육 세미나 (5/22) ▶하계 야유회 (7/17)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8/7) ▶장학생 선발위원회 (8/14, 10/2) ▶추계 Golf 대회 (9/18) ▶미대 동문 작품 전시회 & wine tasting (10/10-31) ▶총회 및 연말 파티 (11/28)

미주 총동창회 (제 19차) 지원

▶평의원회의, 춘계 Golf 대회 (6/11-6/13)

휴스턴 동창회

[회장 박홍우]

2010년에도 2009년 회장단이 전원 유임했습니다. 휴스턴 동창회 (회장 박홍우, 공대 76)의 2010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목표= 동문과 그 가족의 동창회 참여도 제고 및 사업부문별 전문기획 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

▶폴프대회 겸 야유회 (3월) ▶장학기금수여식 (4월) ▶시카고 평의원회의 참가 (6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9월) ▶광교주 위로 파티 (11월) ▶송년 모임 (12월)

필라델피아 동창회

[손재욱 회장]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워싱턴과 뉴욕의 중간지점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유수처럼 소리없이 흘러가지만, 해가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지난해를 성찰하며 새해의 포부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1월인 듯 합니다.

저희 필라 지부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동창회원의 주소록을 갱신하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연락망이 잘 짜여져 있어야 회원간의 소식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일이 어려우면 누가 봉사하든시간에 힘이 듭니다. 제가 2년 동안 회장직을 맡으면서 차후에 임원들이 손쉽게 봉사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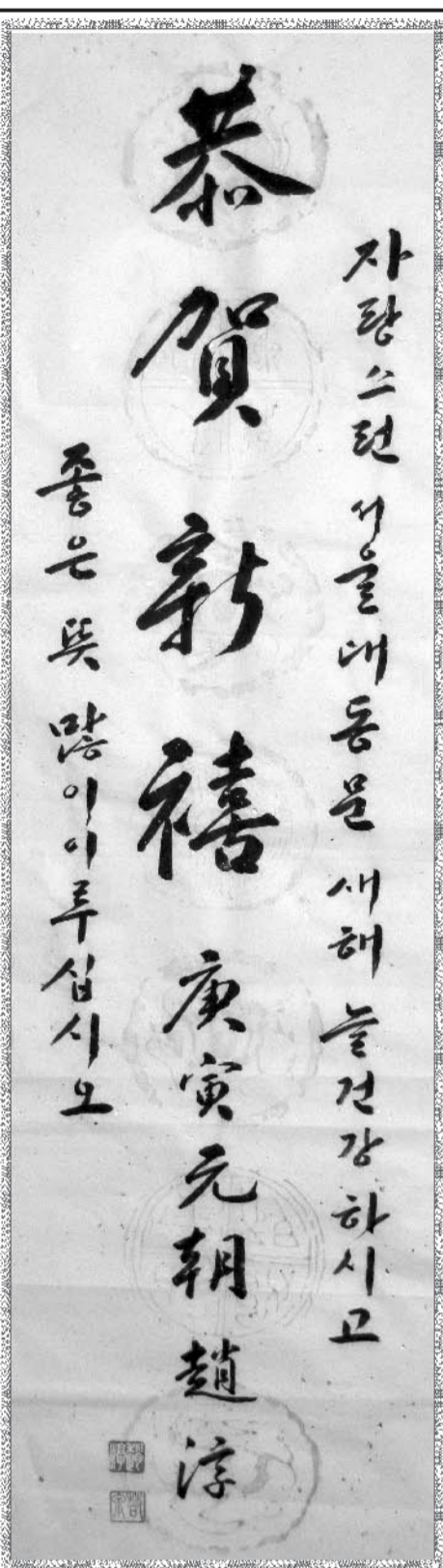
조화연 차기회장

있도록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하여 회계 정리, 회원 주소록 향상, 행사 관리 등의 연례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동안 훌륭한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연도 듣고, 연례사업을 준비하느라 그 목표를 3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임원진들을 도와 지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연구와 회원의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관악 캠퍼스에서는 세계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관리 기술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과 재량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향상시키는데 최대한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조화연 차기 회장 (공대 64)의 연락처는 610-328-2563 (H), robertwc@juno.com.



미주 동문들에게 보내는
조순박사의
최초

조순 박사(서울대 전문부 3년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나라당 총재 역임, 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특 집

한국 근세사 격동의 100년



↑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왼쪽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이)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오른쪽의 부축받고 있는 자)를 권총으로 쏜 뒤 체포당하는 장면이다.

올해 2010년은 한국 근세사에서 민족사적 한 해가 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안중근 의사 서거 100년, 일본이 우리 조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한일 합병 100년이 되는 해다. 또한 민족 상잔의 비극 6.25 한국전쟁 발발 60년, 4.19 학생의 거가 일어난지 반세기 즉 6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고 있다.



안중근 의사 서거 100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 역에 도착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탄 열차는 9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이윽고 오전 9시 경 열차가 벗은 후, 이토는 러시아 계무 대신 코코프체프와 일본 총영사의 안내를 받으며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이토는 러시아 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 환영객들로부터 인사를 받기 시작했다. 안중근은 이토가 10보 정도 거리에 왔을 때 권총을 꺼내 이토에게 3발을 쏘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안중근은 혹시 다른 사람을 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고위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3발을 더 쏘았다. 이토 옆에 있던 일본총영사가와가미 도시히코, 비서관 모리 야스지로, 남만주 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 등이 차례로 쓰러졌다. 곧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덮쳤다. 안중근은 “코레아우라(대한 만세)!” 라고 외친 뒤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다.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수행 의사가 황급히 응급 처치를 했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소식은 곧 전세계로 퍼져 우리 독립운동가들 뿐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기뻐했다. 당시 중국 국가주석 원세개는 다음과 같은 글로 찬양했다. 안중근 의사만(安重根義士輓)平生營事只今畢 死地圓生非丈夫 身在三韓名萬國 生無百世死千秋(평생 버르던 일 이제야 끝났구려. 죽을 땅에서 살려는 것은 장부가 아니고말고. 몸은 한국에 있어도 세계에 이름 떨쳤소. 살아선 100살이 없는데 죽어서 천 년을 가오리다)

당시 중국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 것은 하얼빈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본·영국·프랑스 등 강대국 침략에도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자국민들을 크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토 옆에서 총을 맞은 남만주 철도이사 다나카 세이지로는 ‘생전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안중근’ 이라고 말했다. 자국 영웅으로 추앙받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자신에 총상까지 입힌 한국 청년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다. 다나카는 “나는 당시 현장에서 10여 분간 안중근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가 총을 쏘고 나서 의연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도 광명처럼 빛나는 밝은 신이었다. 그는 참으로 태연하고 늠름했으며 그 같이 훌륭한 인물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고 감탄했다. 안중근에게 감복한 일본인은 다나카 뿐만이 아니다. 안중근이 여순감옥에서 1910년 3월 26일 32세의 나이로 사형당할 때까지 함께 했던 일본헌병 출신 간수 치바 토시치는 안중근에게 감복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안중근 영전에 치성을 올렸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죽더라도 안중근 의사의 유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와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함께 조석으로 공양하라” 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의 아내 기즈요는 1965년 74세로 사망할 때까지 이 유언을 그대로 이행했고, 1979년 유족들이 안중근 의사 탄신 100주년에 맞춰 그동안 가보로 소중히 보관해온 유복을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 전했다. <정진홍의 ‘완벽예의 충동’ >

한일합병 망국 100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 합병조약(合併條約)이 체결된다.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제3대 한국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일합병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일

2010 경신년은

안중근 의사 서거·한일 합병의 경술국치 100년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약은 8월 29일 공포돼 이를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부른다. 이로부터 대한제국은 1945년 8월15일 해방되기까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1909년 7월 6일 내각 회의에서 한국 합병방침을 이미 확정해 놓고 부작용을 없애며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일진회 스기야마 시게마루에게 ‘합병청원’ 시나리오까지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에 앞선 1909년 2월 송병준은 일본에 건너가 대국홍정을 벌인 바다. 이토 히로부미에게 ‘한일합병’ 을 역설했으나 일이 진척되지 않자 직접 일본에 가 가쓰라 다로 수상 등 일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합병’ 을 떠벌인 것이다.

한편 이완용은 이인적을 비서로 통감부 외사국장 교마쓰 미도리와 합방 교섭에 나섰다. 당시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에게 내각을 맡길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서로 충성심 경쟁을 시키려는 전술을 펴고 있었다.

이에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면 나보다 더 친일 내각이 될 수 없다” 며 자신이 합병조약의 주역임을 자신했다. 일본은 이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완용·송병준 등을 이용해 ‘합병 청원서’ 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한민족 반발에 대비해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의 일본군을 밤중에 서울로 이동시키고 대신들을 소집했다.

불러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이 조약에 반대하다 쫓겨났다. 이른바 경술국적이 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진희 등 8명의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해 한일 합병후 이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다.

이 조약의 체결에는 순종황제의 승인 절차상 결함이 있는 데다 옥새는 찍혀 있으나 황제 서명이 없는 등 정상적인 조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모교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 고 밝힌 바다.

이 동문은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국제법상으로도 조약불성립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일 관계는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로부터 우리 조국이 국권피탈로 멸망한 이후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하 식민통치 시기로 36년 동안이나 강제 수탈을 당한 만큼 그 국치적 일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한국 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을 필두로 한 친일 내각, 이용구·송병준 등으로 대표되는 일진회(一進會) 등 매국노들의 반역행위도 큰 몫을 했다.

일본은 한국합병을 달성한 뒤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식민지 경영에 나섰다.

이로부터 효율적 식민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한 예로 1931년(辛未) 만주사변으로 조선 인을 대량학살, 1940년(庚辰) 창씨개명으로 강력한 민족 말살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본 황제폐하는 동감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해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중략>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황제 칙유(純宗實錄三年八月二十九日條)

특 집

한국 근세사 격동의 100년

민족사적 한 해

6.25 한국전쟁 60돌, 4.19 학생의거 50년

민족상잔 6.25 한국전쟁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무력침공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동족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계속됐다.

이 전쟁은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Korean War)’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1945년 8월15일 해방후 한반도의 남과 북 분단정부의 수립은 이미 애초부터 커다란 전쟁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다.

1949년 1월18일부터 1950년 6월24일까지 전투 횟수만도 총 874회가 됐다. 이처럼 6.25 한국전쟁 발발까지 크고 작은 전투로 무려 1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다.

1949년 북한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토완정(國土完整)’을 공개적으로 내세웠다. 한반도의 국토를 완전히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과 1950년 3월 소련 모스크바 방문 등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미그기 등 군수품의 지원으로 전쟁준비를 강화해나갔다.

한편 김일성은 중국 주석 모택동으로부터도 전쟁을 일으킨 후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중국은 2만여 명의 참전경험 중공군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여기에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밝힌 미 방위선에 대한 정책선언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의 결심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애치슨은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된다’

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어 5월에는 모택동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아 6월25일 마침내 동족 상잔의 비참하고도 처절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남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은 민간인을 포함해 60여만 명이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미군 사망자는 총 5만4천여 명으로 집계돼 있다.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를 합하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남한의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으며 그중 85%는 민간인이다. 또 전쟁 중 일시적 오해와 이념적 갈등으로 아군들에 의해 피난민과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숫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노근리 학살사건,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대중선동으로 인민군들이 주민들을 대량 살해한 인민재판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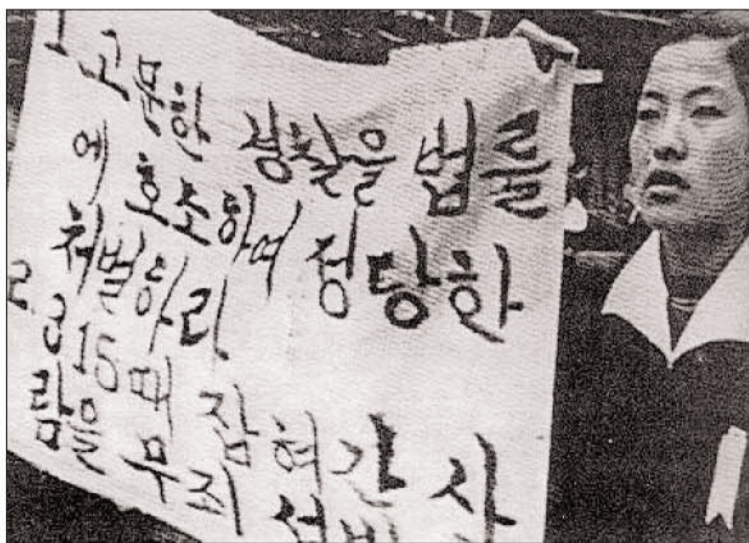
소련 통계에 따르면 북한 인구중 사망자는 총 113만 명으로 인구의 11.1%에 이른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을 합하면 무려 250여만 명이 사망해 근세기 가장 인명피해가 크고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돼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 전쟁으로 80%의 산업·교통·공공시설과 정부 건물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으며 가옥의 절반이 파괴, 손상을 입었다.

4.19 학생의거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 4.19 학생의거에 참가한 고등학교의 한 여학생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1950년 6월 28일 개전 사흘만에 북한군 탱크들이 중앙청을 거쳐 남대문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의 자유당 정권에 반대해 1960년 4월19일 전국의 학생들이 반정부 항쟁운동을 시작했다.

이 의거는 12년간에 걸친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키게 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

4.19 학생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장기간 독재와 부정부패에다 1960년 3월15일 있었던 제4대 대통령 선거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자유당 정부는 이 선거후 3월17일 개표 결과 이승만이 88.7%, 이기붕이 79% 득표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을 중심으로 시민들까지 전국적인 규탄시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건은 1960년 3월15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날 시작됐다.

당시 자유당에서는 이 날에 대해 이승만의 장기집권 외에 도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한 선거일로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3.15선거는 대한민국 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이고 치졸한 부정선거로 시작됐다.

부정선거의 예를 들면 공개투표·강제투표·유령투표·유령볼표 등 여러가지였다.

공개투표는 3~5인씩 짝지어 기표하고 자유당원에게 검사

받는 투표며 강제투표는 투표소 주변에 자유당의 폭력 완장 부대를 동원해 야당 지지자에게 위협을 주는 투표 형식이였다. 또한 유령투표는 비거주자를 유권자로 둔갑시켜 자유당에 투표하게 하는 방식이였으며 자유당 표를 미리 투표함에 대량으로 넣어두는 것이 유령투표였다.

선거가 치러졌던 3월15일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작태의 부정선거가 속출하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부득이 선거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선거 뒤 처음으로 마산지역에서 학생·시민시위가 일어났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게 됐다.

이 날 오후 3시경 마산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협잡선거 물리치자”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에 돌입했다.

당황한 자유당에서는 폭력패들을 동원해 각목과 곤봉으로 이들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투석전을 펼치며 마침내 제1차 마산봉기가 시작됐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은 시위에서 경찰에게 발포명령을 내려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서울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와 이기붕 처소로 몰려가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으며 부통령 당선자 이기

붕 일가족은 권총으로 동반자살하고 말았다.

광주 민주항쟁 30년

지난 1980년 5월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12·12 군사 반란 신군부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조속한 민주주의 정부 수립 등이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신군부 세력들은 공수부대를 선두로 한 계엄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계엄군은 진압 과정에서 시위 학생 뿐 아니라 시위와 관계없는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운동권과 관계없는 대학생과 중장년층은 물론 10대 중·고교생들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9일에 걸친 시위항쟁과 무력진압 결과 인명피해는 공식적으로 피살 191명, 부상 852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신군부에 의해 피살자가 상당수 누락돼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의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명칭됐다.

이승만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나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

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느바 그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 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1960년 4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특집: 미국의 인권운동



조 동 준 (의대 64년 졸업)
전미주 의대 동창회 회장

Every year we observe the third Monday of January as a national holiday to celebrate the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who was the foremost champion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for African-Americans. In fact, he rebuilt our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its own "New World" without segregation, racial discrimination, and with all human equal rights. Furthermore, Dr. King's greatest victory was that he achieved his goals by non-violent action with no blood shed. For his contributions to society and his commitment to the principle of non-violence, Dr. King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64, and, at 35 years of age, was the youngest Nobel Laureate ever to have received the Peace Prize. Until not long ago, we saw so much racial discrimination in our societies and it is hard to believe that King used just non-violent action to resist and to redress social injustice. I still have doubt that it was even realistic and effective. However, forty years ago, Dr. King declared, "I have a dream" in his famous speech for over a quarter million people on the steps of the Lincoln Monument in Washington, D.C. Today, we see an African-American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Dr. King's dream, in many many ways, has come true. And it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his dream.

Martin Luther King, Jr., had a strong family background of religion. According to his own autobiography, his grandfather began the family's long tenure as pastors of the Ebenezer Baptist Church in Atlanta, serving from 1914 to 1931; his father served from then and Dr. King from 1960 until his death, acted as co-pastor. The book states, "My mother, Alberta Williams King, has been behind the scene setting forth those motherly cares, the lack of which leaves a missing link in life. She is a devout person with a deep commitment to the Christian faith, she is soft-spoken and easy going. She instilled a sense of self-respect in all of the children and also told about slavery and how it ended with the Civil War during his childhood." According to Dr. King, his mother also tried to explain the divided system of

Hero of Nonviolence Dr. Martin Luther King, Jr.

the South such as segregated schools, restaurants, and lavatories, the white and colored signs on drinking fountains, waiting rooms as a social condition rather than a natural order. She also made it clear that she opposed that system and she must never allow it to her to make her feel inferior.

By contrast, Dr. King described his father as strong with a dynamic personality and a physical presence that commanded attention. He also admired his father in the book: "He has Christian character and he had quite an interest in civil rights and he was president of the NAACP in Atlanta and had great influence in the Negro community."

Looking into his educational background, King was highly educated by the comparison to his fellow African-Americans at the time in the South. By his own account, he attended segregated public school in Georgia,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t the age of fifteen; he received the B.A degree in 1948 from Morehouse College, a distinguished traditionally black institution of Atlanta from which both his father and grandfather graduated. After three years theoretical study at Crozer Theological Seminary in Pennsylvania where he was elected president of a predominantly white senior class, he was awarded the B.D in 1951 and later he received his Doctorate in Systematic Theology from Boston University.

During his study in Boston, Dr. King met and married Coretta Scott, a young intellectual with artistic attainments. Even with such a solid educational background, he confesses in his autobiography that he was far from convinced of the practicability of non-violent action to resist social injustice. Dr. King explains that, at the time, he thought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 of segregation was an armed revolt. However, he also mentions in the book that he was, for the first time, exposed to the pacifist position in a lecture by Dr. A. J. Muster and deeply moved by the talk. He also confesses in the book that he thought that the Christian ethic of love was confined to individual relationships only, not applicable to social conflict.

Later, Dr. King was also influenced by Dr. Mordecai Johnson, who had just returned from a trip to India. Dr. Johnson, then-pres-

ident of Howard University, spoke of the life and teaching of Mahatma Gandhi who campaigned for nonviolent resistance and his numerous fasts. Dr. King claims he studied seriously and became deeply fascinated by Gandhi's idea. He also mentions that he agreed that Gandhi was probably the first person in history to lift the love ethic of Jesus above mer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to a powerful and effective social force on a large scale. From that point, eventually, King's skepticism concerning the power of love gradually diminished and he reached to see for the first time its potency in the social reform, again according to his book. Dr. King insisted that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non-violence is to love the enemy, or the realization of the

evil. According to Gandhi's famous book Non-Violent Resistance, Gandhi resisted evil with as much vigor and power as the violent resister, but he resisted with love instead of hate. Gandhi insisted that true pacifism is not unrealistic submission to evil power. Similarly, Dr. King defines in his autobiography that non-violent resistance is courageous confrontation of evil by the power of love, in the faith that it is better to be the recipient of violence than the inflictor of it, since the latter only multiplies the existence of violence and bitterness in the universe, while the former may develop a sense of shame in the opponent. We now know that Dr. King's philosophy and theology of non-violent resistance emanate from Gandhi and Christian love.



humanity of all people, and that the goal of this nonviolence is not to defeat the enemy, but to win them over and create love and understanding between all. We all remember that Jesus urges his followers to "love thine enemy." By the same token, the pragmatic fundamental concept of nonviolence is to create a social dynamic or political movement that can effect social change without necessarily winning over those who wish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modern industrial democracies, nonviolence has been used extensively by political sectors without mainstream political power such as labor unions, environmental advocates, and the women's movement.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has been made aware of the impact of Aung San Suu Kyi of Myanmar and the Dalai Lama of Tibet, each of whom has been used non-violence action to resist in their political purposes. Both of them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s in 1991 and 1989, respectively. Gandhi's emphasis on love and nonviolence was the method for social reform that Dr. King had been seeking. Gandhi's true pacifism is not nonviolence to evil, but nonviolent resistance to

Just after Dr. King finished his study in Boston and returned to the church of his hometown, Dexter Avenue Baptist Church in Montgomery, Alabama, Rosa Parks, a 42-year-old civil rights worker, happened to be arrested in Montgomery for refusing to vacate her seat on a bus for a white man as required by the segregation law. Since she was well-educated and worked as a secretar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the community thought she was the right person to protest against segregation. And Dr. King's autobiography relates that he happened to represent Ms. Parks as the leader of the Montgomery Improvement Association to resist with the Montgomery Bus Boycott. The meeting of Rosa Parks and Dr. King in the same area and at the same time was indeed highly fortuitous. Certainly, on this occasion, the black community leaders decided to organize and protest. The bitterness against white people and racial discrimination had accumulated for a long time and this protest movement was the first explosion of blacks at that time. With the full support of

Montgomery's blacks, the first boycott was successful and they got what they wanted such as employment of African-Americans to drive buses and desegregation in transportation and so on. As the autobiography says, actually the boycott protest was the beginning of the long civil rights movement of American blacks in the 20th century of America and Dr. King became the main leader of the movement. Among his many activities, one of the actions to be mentioned was the Washington D.C protest with the mobilization of 250,000 people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and the famous "I Have a Dream," which inspired both black and white people who agreed with Dr. King regarding social injustice and human equality. Now it is considered one of the three most famous American speeches, along with President Abraham Lincoln's Gettysburg address and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s First Inaugural address. King said that he had never seen such enthusiasm for freedom and his heart was full. Dr. King expressed that the inspiration of Mahatma Gandhi began to exert its influence and he realized that the Christian doctrine of love, operating through the Gandhian method of nonviolence resistance were the most potent weapons available to the African-American in his struggle for freedom. He also claims in his book that people responded to his philosophy with amazing ardor. We could assume easily there were so many difficulties in civil rights movements out of our imaginations at those time.

Today, our society is a totally different country from the one Dr. King lived in, with no racial segregation, no discrimination, and no racism. Dr. King and all the principal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literally created a new world without any bloodshed, except, ironically and tragically, Dr. King's own. The change was done only by nonviolent action. Mahatma Gandhi was able to attain the independence of India from the British monarchy and Dr. King remodeled not only our society but the whole world as well without racism. Only a very few people believed that nonviolent resistance is such a powerful, potent weapon in changing social injustice. We can tell clearly the efficiency of non violent resistance and even how greatly it worked. Once Dr. King had a dream and we have seen the consequence of the dream now, the first African-American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He is a hero and the champion of 20th century civil rights movement of America and the whole world.

특집: 미국의 인권

역사 권익보호의분수령 1964년 인권법 배경과 연실

주필 이윤모 (농대 57입)

1월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의 인권운동으로 미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1964년 인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Pub.L. 88-352) 제정을 생각하게 된다.

이 법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미국민에게 선거권과 공공시설의 평등한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법을 개정하도록 1963년 6월 11일 의회에 요구하는 연설에서 시작했다. 이에 앞서 킹 목사는 흑인 차별 사건들에 개입하며 비폭력 저항운동을 주도해 스스로 투옥당하며 미국민의 양심에 불을 지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6월 19일 의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사실은 개정안)은 인종·피부색·전 노예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민은 공공시설 사용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Civil Rights Act of 1875'를 근거로 한 것이다.

미국 인권법의 유래

인권(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인간의 기본 자유권을 지칭하는데 비해 인권(Civil rights)은 특정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의 원천은 4천년 전 함무라비 법전이나 영국의 Magna Carta (1215)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현대에는 유엔이 1948년 채택해 오늘날 30장(Articles)에 이르는 유엔 인권장정(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있다. 유엔 인권장정은 인간의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하는 데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북한 같은 경우) 인권을 보호하거나 침해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선연들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인권법은 시민들간의 평등한 권리를 지닌 반면에 중형으로 여러 겹의 집행기구들에 의해 시행되는 실용적인 법규들이다.

미국 인권법(Civil Rights Act)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장정(Bill of Rights)은 건국 선조들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인권 사안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채택했다. 그 중에서 1789년 9월 25일 연방의회가 12개 헌법수정

안으로 각 주에 보내 주별로 비준한 10개 수정안이 1791년 12월 15일 이후 '권리 장정(Bill of Rights)'으로 남게 됐으나 실제로는 27개의 헌법수정안이 통과됐다.

남북전쟁 발발을 앞두고 흑인 노예 자유화 운동이 일기 시작해 전쟁 초기인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포문(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존슨 대통령이 1964년 인권법에 서명하는 배후 증인에 킹 목사가 있다.

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인권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1877년 남북전쟁 종결 이후 암흑기를 지나다가 현재의 미국 인권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세계2차 대전이었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흑인 병사들이 귀환해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거부당했던 데서 압력이 증대하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The President's Committee on Civil Rights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7년 9월 9일 The Civil Rights Act of 1957을 서명, 남북전쟁 이후 첫 인권 입법을 제정하고 Commission on Civil Rights를 집행 기구로 설치했다.

1964년 인권법 제정

킹 목사가 특히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전에서 워싱턴 마뉴먼트 광장에 모인 30만 명 군중에게 터뜨린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은 1960년대 인권운동의 절정을 상징한다. 워싱턴 대행전이 케네디 대통령의 인권법안을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일부 흑인 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해 11월초 의회 규칙위원회에 이관됐다. 그러나 11월 22일 케

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월남전쟁에서 추락되는 자신의 인기를 국내 정책에서 만회하기 위해 의회를 다루는 능숙한 솜씨를 발휘해 인권법안을 1964년 2월 12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해 6월 10일 상원 통과에 이어 상하원 조정 법안이 6월 19일 상원을 통과하고 7월 2일 존슨 대통령이 서명했다.

인권법 골자

1964년 인권법 각 장(Title)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타이틀 1은 시민의 선거권 등 특 불평등한 조건을 금지했다.

다. 그러나 선거권자의 자격, 선거권 행사에 대한 경제적 및 폭력 보복을 저지하는 조항들을 명시하지 못했다. 남부 주에서 투표세금, 문자 해독 테스트 등 절차상 계약을 비롯해 협박·폭력·경제적 제재 등으로 흑인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므로 존슨 대통령은 후속 입법을 서둘러 1965년 선거권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후 1970년, 1975년, 1982년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을 보강했다.

타이틀 2는 공공 시설(숙박업소·식당·공연장, 그리고 사업장 등) 사용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프라이빗 클럽 시설을 공공 시설에서 배제하여 그 후 사교 클럽과 골프 클럽에서 차별 시비를 하는 허점을 남겼다.

타이틀 3은 타이틀 2를 보충해 주 및 지방 정부들의 시설을 인종·종교·성별·민족 등을 근거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지방정부나 경찰·소방서 등이 시민의 서비스 요구에 차별하는 경우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타이틀 4는 공립학교의 인종통합을 권장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연방 법무장관이 소송할 권리를 부여했다.

타이틀 5는 민권위원회(Civil

Bill of Rights 민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

1791년 헌법 수정조항으로 확정해 둔 '권리장정'은 지금도 미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거이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제1수정조항: 종교시설과 신앙행위, 발언과 발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해, 그리고 불평 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관련 사항에 대해 의회는 입법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항은 오늘날 종교와 정치의 분리,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제2 수정조항: 개별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잘 통솔된 민병대, 그리고 개인이 무기를 휴대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 조항은 오늘날 주 방위군의 1차 통수권을 주지사가 가지며 개인들의 총기소지를 신성시해 각종 범죄에 총기가 악용되는데도 전국 총기협회의 로비에 막혀 사법 집행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제3수정조항: 개인주택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평화시에 군대가 수용할 수 없으며 전시에도 법이 정하는 외에는 불가하다.

제4수정조항: 개인의 신변, 주택, 문서, 기타 소유물을 부당하게 수색 또는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다. 타당한 이유와 선서 또는 확인 없이 수색 또는 압수 영장을 발부하면 안된다.

제5수정조항: 전쟁 또는 대중의 위험 상황이 아닌 경우 어느 누구도 대배심이 출석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여건에서 중범죄, 또는 파렴치범으로서 대담을 강요당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신상 구속을 한 번 이상 당할 수 없으며 범죄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할 수 없으며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으며, 사유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공 사용을 위해 빼앗길 수 없다. 이 조항은 범죄 피의자가 체포와 재판과정에서 독비권(5th Amendment)을 행사할 근거가 되고 있다.

제6수정조항: 범죄 피의자는 범죄 발생 주 및 지방의 불편부당한 배심원들로부터 신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피의자는 혐의 내용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제6 수정조항들은 범죄 피의자 체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를 인정하는 소위 Miranda 권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란다 케이스는 강도·남치·강간 혐의로 체포된 Ernesto Miranda에게서 경찰이 강제 자백을 받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1966년 6월 13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관계가 됐다.

제7 수정조항: 피의자는 배심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지며 배심 재판을 받은 사실은 법이 정하지 않는 한 연방법원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제8수정조항: 과도한 보석금 또는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며 잔인행위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제9수정조항: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열거했더라도 그 외의 개인 본연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비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10수정조항: 헌법이 연방 정부에 부여하지 않거나 주 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시민의 것으로 유보된다.

Rights Commission, 1957년 인권법에 의해 설립)에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집행 절차와 시행 규정을 보강했다.

타이틀 6은 지방 자치 정부와 기관들이 연방 자금 혜택(그랜트·융자·계약)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출신국을 근거로 차별 시행을 못하게 하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토록 했다. 이 조항은 특히 교육기관들과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에 신속히 적용되기 시작했다. 연방 교육성은 인권법 타이틀 6을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제를 수정해 학생 인종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타이틀 7은 타이틀은 직업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타이틀 6을 연장해 고용인들의 인종·피부색·종교·성별·출신국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또한 어떤 개인에 관련된 사람(예, 배우자

)의 특성(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 등) 때문에 본인을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 규제 대상으로는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직업 알선 기관, 노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은 연방 판서에서 소위 Federal Affirmative Employment Programs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소수민족과 여성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어퍼머티브 액션' 개념은 학원에 범람해 학원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 쿼터"라는 통념을 초래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U.C-Davis)대의 대입학에 누락된 백인 앨런 버키가 제기한 역차별 소송에 연방대법원은 1978 6월23일 "인종 쿼터제는 역차별을 초래했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8페이지에 계속]

특집: 미국의 인권

‘어퍼머티브 액션’과 반작용

어퍼머티브 액션’ 개념은 학원 입학 뿐 아니라 각급 직장, 특히 공공 정부기관의 고용에서 광범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역차별 문제가 공직 고용에서도 제기되어 백인 역차별 소송이 계속 계승을 겪고 있다.

타이틀 8은 민권위원회의 분류대로 선거권자 등록 기록 및 투표 데이터를 연방 상무성(센서스 뷰러)이 신속히 수집하도록 명시했다.

선거권자의 인종·피부색·출신국별로 선거권 연령자를 파악하고 그 실제 연방 총선거와 중간선거 유권자 등록 실제 데이터를 수집, 각 지역 선거관리기관들이 센서스에도 실시하도록 규

정했다. 타이틀 9는 민권법 관계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도록 주 법정에서 인종분리주의자 관사나 백인 배심원들의 통제로부터 연방법원으로 쉽게 이관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그리고 지방이나 주 법정의 재판에 연방 법무성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간여할 권한을 부여했다.

타이틀 10은 Community Relations Service 부서를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에 설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차별 분쟁 발생 시에 실제적 지원을 하며 지방, 주 정부의 협조를 받도록 규정했다.

종 거주처) 임대·구입·주택 용자 및 그 외 주택 관련 거래에서 인종·피부색·출신국·종교·성차별을 금지했다.

이법은 1988년 개정되어 가정형편(어린이 동반 가정, 임신부), 심신 장애인 등의 주거 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또한 1988 개정법은 주택 차별 피해자를 대행해서 연방도시 및 주택 개발성(HUD) 법무관들이 행정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방 법무성 민권국이 연방법원에 고소할 수 있도록 연방의 제재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1991년 3월 이후에 건립한 복합 주거 건물에는 신체장애자의 주택 활용을 위한 접근을 용이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ADA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들을 직업, 교통수단, 공공 시설과 서비스, 통신 등 분야에서 차별 금지하는 법이다.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그들이 기술을 활용하고 소비력을 주어 미국 사회를 더 풍요하게 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2008년 수정한 ADA는 장애 여건으로 간질·정신충격 후기 증상 등을 장애 여건에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전문 의료기술에서 보조의료 장비를 혜택에 보장하도록 했다.

성취향 차별금지법 (Sexual Orientation/Preference)

에 대한 차별 금지법은 연방법은 없으나 진보적인 주법(예, 일리노이 인권법), 시나 카운티 조례에는 포함된 곳이 있다. 동성애자들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함으로써 배우자의 의료보험, 아동 양육권 등 권리를 보장해주는 주들이 있다.

민권법 집행 각급 기구들

2009

20세기 미국 민권의 최초 집행기구는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치된 미민권위원회(Commission on Civil Rights)다. 당초 직무는 시민이 피부색·인종·종교·출신국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고발에 대해 조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및 정책에 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11월 민권위원회 설치법이 만료돼 행정부에서 임시로 예산 집행을 맡는 외에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 있다.

1964년 민권법은 그 위반에 대한 광범한 집행권의 대부분을 연방 법무장관에게 부여했다. 연방 법무성 민권국은 헌법상(Bill of Rights)의 기본 민권 집행을 관할하며 다른 연방 기관이나 지방 정부기관의 민권법 시행도 지원하고 있다. 1964년 민권법이 상무성에 지역사회의 차별 분쟁 발생 시에 실제적 지원을 하며 지방, 주 정부의 협조를 받도록 규정한 기능은 실제로 오리무중이 되고 법무성이 더 활발하다.

1964년 민권법 타이틀 7은 고용 차별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으로 연방 균등 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를 설치토록 했다. 민권법의 여러 보호 조항 중에서 위반 사례의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신고되는 것은 고용 차별이다. EEOC에 전국적으로 신고되는 고용차별이 2000년대에 다소 감소하여 연간 8만 건을 밀들다가 경제사정이 나빠진 2008 회계년에 9만5천402건,

회계년도에 9만3천277건이나 됐다. EEOC가 고용차별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2009회계년에 2억9천420만 달러를 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이 금액에는 법적 벌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 차별은 연방 도시-주택 개발성(HUD)이 관할하며 전국 수백 개의 민간(Fair Housing)자생단체들에게 자금을 주어 주택차별 방지와 고발을 대행시키고 있다.

연방 민권법 집행 기구 외에도 주, 지방 정부 단위의 기관들이 활발하게 민권법 집행을 하고 있다. 주 정부 수준에서는 민권(Civil Rights) 또는 (Human Rights) 전담 기구로 Department 또는 Commission 수준의 기구를 두고 있다. 주 정부 인권국 수준에서는 수십 명의 조사관과 법무관들을 두고 연간 수천 건의 차별 고발을 처리한다. 역설적이게도 연방 민권법보다도 주 인권법의 적용분야가 훨씬 더 포괄적(예, 동성애자 보호, 불법체류자 보호)인 경우도 있다. 주 정부 중에서 민권 전담 기구 대신에 노동, 경제개발 부서에서 국한된 차별된 문제를 다루는 주도 있다. 지방 정부는 카운티나 대도시의 경우 민권위원회나 인간관계 위원회(Human Relations Commission)가 법무관과 조사 스템을 두고 있으며 작은 시나 빌리지 단위에서는 커미션 수준의 정규 직원이 없는 협의 기구를 두고 있다.

[필자: 사회학박사, 일리노이 주 정부 인권국 연구기획실장 역임 은퇴]

64년 이후 우속 민권 법률들

연령차별 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

은 40세 이상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64년 민권법 타이틀 7을 구체화하여 취업·승진·임금·휴직 또는 해고, 피고용자 혜택(특히 연금) 등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일반을 위한 직장의 광고에서도 연령차별을 암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용인 혜택을 감축할 경우 고령자의 생활비 필요가 감소하지 않는 한, 젊은 사람들보다 대우를 줄여서는 안된다. 특히 강제은퇴 직령이 복잡한 사안이 되어 공직에서는 연령에 의한 강제 은퇴가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1986년과 1991

년 수정 보완 됐으며 2000년 연방 대법원 판결은 주 정부를 이 법 적용에서 면제시켰다.

한편 연방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특정법으로 Age Discrimination Act가 1975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특히 연방 교육성의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교육성의 민권국이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이 법이 규제하지 않았고 1967년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에 맡기고 있다.

공평 주택법 (Fair Housing Act of 1968)

은 1964 민권법 타이틀 8의 연장선에서 주택(각

서울대 미주동문 인명록 2009 내용 중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발전기금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인명록을 발송한 이후, 몇몇 동문으로부터 내용 중 단과대 또는 전공학과의 기재 잘못, 영문이름 오기(誤記) 등 잘못된 표기된 개인 정보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 동문님에게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취지와 마음으로 벌여놓은 사업인데, 본의 아니게 잘못 입력된 기록 때문에 피해를 본 동문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만든 이로써도 그저 송구스럽고 몸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발전기금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잘못 표기된 오류들만을 모아 정정본을 만들어 인명록을 주문했던 모든 동문에게 올 6월 중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오류 이외에도 더 나올 줄 압니다. 올 2월 말까지 수정된 정보를 보내주시면 잘못 기재된 개인 정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명록을 받아보신 동문 중 해당되는 동문께서는 발전기금위원회 이메일 주소 snuausa@gmail.com 으로 동문 성함, 단과대, 입학연도, 주소, 전화번호, 잘못된 부분과 수정된 것을 보내주시면 정정 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파악한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동문입니다.

지역	동문 성함	바로잡음	오류
뉴욕	조화유	문리대 사회학과 61년 입학	동대 58년 입학으로 잘못기재
뉴욕	장동만	dmjang36@msn.com	dmjang@msn.com
뉴욕	한정수	문리대 정치학과	문리대 철학과로 잘못기재
뉴욕	김자훈	의대, 작고	미확인으로 잘못 기재
뉴욕	이상명	간호대, 현주소	옛주소로 미확인에 이중기재
뉴욕	이일령	음대 성악과	미확인으로 잘못 기재
뉴욕	정세웅	치대, SeWoong	SeiWoong, 미확인으로 잘못 기재
뉴욕	이홍승	이홍승(상대 76), 현주소	이홍성, 과거주소, 미확인으로 잘못 기재
워싱턴디시	김정국	사대	문리대로 잘못기재

2009 인명록 편찬 위원회

재정계획 강좌

절세의 지혜



김창수 CPA • MBA (약대 64, 경영대학원 68)

2009년도 소득에 대한 택스리턴(Tax Return)은 오는 4월 15일 까지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에 개정된 세법은 이번에 제출할 소득세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09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 은퇴계좌(IRA)• SEP •401(K)플랜 등에 들어있는 잔고는 70.5세 이후부터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작년에는 주가 폭락으로 이들 은퇴계좌에 들어있는 증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70.5세 이후 적용되는 최소 인출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많은 투자 손실을 보게 돼 있다.

2009년 개정세법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투자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 규정의 적용을 보류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보지 않고 이들 은퇴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종업원이 주 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은 과세소득이다.

개정세법에 의해 2009년도에 받은 실업수당 중 2천4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실업수당으로 6천달러를 받았으면, 2천400달러를 제외한 3천600달러만 소득세보고서 소득으로 간주한다.

-직장인이 출퇴근 교통비용은 세금공제가 안된다.



단지 직장에서 공중교통수단(기차•지하철•버스•페리 등)을 이용하는 종업원을 위해 단체로 승차권을 구입해 나눠주면 개인 소득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를 'Transit Pass' 라고 하며 2009년 3월부터 월간 면세 혜택의 최고 금액이 230달러로 올랐다. 그 전 해까지는 115달러였고, 2009년 1월부터 120달러로 올랐는데, 3월 230달러로 또 인상됐다. 그리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파킹로도 월 23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용으로 종업원이 자전거를 사면, 구입비•수리비•보관료 등을 직장에서 대납해주는 경우 종업원은 그 만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09년 중 주택을 처음 구입한 납세자는 8천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규정은

학자금 면세 코스 관련 비용에도 확대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인 연장 교육에도 매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08년 있었던 7천5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의 경우 15년간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어서 무이자 용자와 유사한 것이었는데 비해, 2009년도 세금 감면은 반환하는 것이 아니어서 절세 효과가 크다.

이 혜택은 원래 2009년 11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에 적용됐는데, 세법이 개정돼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 사항이 추가됐다.

(a) 2010년 4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 8천달러의 세금 감면혜택을 주되, 4월 30일까지 계약한 것은 6월 3일까지 클로징을 해야 한다.

(b) 2009년 11월7일 이후 구입한 첫 주택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의 총소득이 12만5천달러, 부부는 22만5천달러 이하여야 한다. 총수입이 그 이상이면 세금감면 혜택이 차차 줄어들며 소득이 14만5천달러(개

인)와 24만5천달러(부부)이상이면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2009년 11월 6일 이전 구입한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개인의 총수입 7만5천~ 9만5천달러, 부부의 총수입 15만~ 17만달러 미만에 적용된다.

(c) 세금보고서 제출시 주택 매매완결서(Settlement Statement; Form HUD-1)를 첨부해야 한다.

(d) 주택 구입가격이 80만달러를 초과하면 혜택볼 수 없다.

(e) 부양가족이 주택을 구입하면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f) 군복무자와 해외 근무 의무와 정보 관계의 공무원은 이 혜택 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된다.

(g) 기존 주택 소유자도 옛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다른 집을 사기 전 8년 중 5년 이상을 계속 해서 한 집에서 살다가 옛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 6천500달

리(부부)와 3천250달러(개인)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Form 5405(First-Time Homebuyer Credit)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단 주택을 산 뒤 최소 3년간은 그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감면이 취소돼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가 자택을 팔았을 때, 팔기 전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주택 양도 소득 중 개인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면세된다.

2009년부터는 납세자나 배우자(혹은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주택 보유기간 중 2009년 이후 자택에 살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학 학자금은 소득세법

상 세금감면•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2009년 개정세법에 의해 고등교육비(Higher Education Expenses)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

(a) 세제혜택을 받는 교육비는 그동안 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 대학수준의 기술학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등록금(Tuition & Fees)으로 제한됐는데, 개정 세법에서는 코스 관련 비용(Course Expenses)이라고 해서 학점을 따는데 필요한 교과서•문방구•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 교육기자재 등의 구입 유지비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따라서 교육비 중 기숙사비•식비•교통비•보험료•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감세 혜택을 받는 고등교육비로 인정받게 됐다.

물론 장학금(Grants, Aids & Scholarships)은 전체 교육비 중에서 공제해야 하고, 각종 교육

용자액(Student Loan & Parent's Loan)은 장학금이 아니므로 당장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도 교육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b) 대학 입학후 2년간 세금감면혜택을 준 Hope Scholarship Credit은 입학 후 4년간으로 연장됐고 그 이름도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바뀌었다. 교육비 중 첫 2천달러에 대해 100%, 그 이상 4천달러까지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금감면을 주며, 연간 최고 2천500달러의 감세 혜택이 있다.

(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4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에는 내야 될 세액까지만 줄여주었는데, 2009년부터는 달리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최고 1천달러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 대학 입학후 4년이 경과한 재학생•대학원생, 직장 업무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장 교육을 받는 직장인 등이 대학•대학원, 전문기술학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및 등록금과 코스 관련 비용 중 1만 달러까지 20%를 공제한 금액, 즉 최고 2천 달러의 평생 교육비 크레딧을 연수 제한 없이 매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2월 1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새 자동차(8천500 파운드 이하의 경트럭 및 모터사이클 포함)에 부과된 세일즈 택스와 물품 소비세(Sales Tax & Excise Tax)는 특별히 세금공제 된다. 즉 표준공제할 경우 그 만큼 표준공제액을 높여주고, 항목별공제 때는 그 액수가 공제항목에 포함돼 세금공제액을 높여준다. 이 특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차의 값은 4만9천달러 미만이다. 차 값이 이 금액보다 높을 때는 이 금액에 적용되는 세일즈 택스와 물품세만 세금공제할 수 있다.

이 혜택은 개인의 총소득이 12만5천달러, 부부의 총 소득이 25만달러 이하에 적용되고, 소득이 그 이상이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다가, 13만5천달러(개인)와 26만달러(부부) 이상이면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그 운영비용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주행 마일수에 관한 기록만 가지고도 자동차 비용을 세금공제 할 수 있다. 주행 마일당 55센트를 클레임 할 수 있다. 개인이 차를 비즈니스에 사용하면, 마일당 55센트씩 사업체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이사항 떠나 의료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마일당 24센트, 자선활동에는 마일당 14센트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changsookimcpa@hotmail.com

동문 회보 독자 서베이 실시

미주 동창회보를 애독하는 동문 독자 여론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서베이의 목적은 미주 동창회와 회보의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동문들께서 회보의 어떤 내용을 자주 읽으시는지, 그리고 회보에서 취급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더 개발하기를 원하시는지 등, 독자의 선호를 파악해 회보의 시정할 것과 보강할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독자들의 요구가 동문 각자의 배경과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회보 독자의 기본 특성에 관해서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미주 동창회가 추가로 할 기능에 대한 의견,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 의욕 등에 관한 설문도 있습니다.

이 서베이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베이 폼을 사용하므로 참여하시는 분이 신상을 밝히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는 절대로 침해되지 않습니다.

서베이 참여가 충분하면 주요 내용을 신속히 회보에 보도하고 회원들의 토의나 동창회의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구상할 것입니다.

서베이 웹 링크는 "http://www.surveymonkey.com/s/SNUAA_1"입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가 건설중인 웹사이트("http://snuaa.org/survey")를 통해서도 서베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베이는 약 10분 내지 1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만약 링크를 찾지 못하거나 서베이 응답중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동문광장

논설·시·수필

“역사는 지을 수 없다”

육길원 (논설위원)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36년, 빼앗긴 민족사의 비극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에게는 땅국의 서러움과 역사의 왜곡으로 인해 더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친일 심판 문제는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민족문제 연구소’는 지난 2001년 편찬작업을 시작한지 8년만에 최근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3권, 3천여 페이지에 지도적 친일 인물 4천389명의 행적이 수록돼 있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문필가 장지연, 역대 최고 인기 대통령 박정희,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민족지인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 조선일보 방응모 등 평소 존경을 받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놀라움과 실망을 함께 안겨주었으며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또다른 명단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도 며칠 간격으로 발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



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 위원회는 4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4부 25권, 모두 1만

제에 협력해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친 행위’라는 더 엄격한 잣대의 판단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족과 보수층은 명단 선정 기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는 법원에 강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독립군 출신 장준하 선생 3남 장호준 목사는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역사는 결코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응모 선생이 포함된 조선일보의 “역사 사냥놀이”, 김성수 선생의 동아일보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각각 반박을 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

“이 가운데 죄없는 자는 들로 쳐라”는 어설픈 성경 인용이나 “과거사를 들먹여 이로울 것이 무엇이나, 그 당시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의 구차한 상황 논리는 실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48년 9월 발족한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는 친일파의 음모와 반대로 단지 200여 명만을 기소하고 1년만에 간판을 내렸다. 그리고 처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한국은 안타깝게도 건국 초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일을 때를 놓치고 말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려 건국세력은 많은 친일 세력이 건국세력이 됐으며 풍찬노숙하며 항

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을 수 없는 역사를 지우려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우리는 언제까지 치욕의 역사를 호도하고 옹호하면서 살아야만 한단 말인가. 만시지탄이지만 역사의 용어리를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의 한국사 왜곡은 길길이 뛰면서 정작 자신의 친일 문제에는 너무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승중 전 국무총리는 “선친이 모두 독립운동가로 헌신했는데 내가 일본군 장교로 지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부끄러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공개적인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다.

친일 인명사전이 반민족특위와해 60년만에 간행된 데 대해 전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강만길 숙대 명예 교수는 “부일 협력이라는 치욕스런 행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용감하게 대면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삼겠다”고 출판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다. 남은 과제는 과격한 프랑스식 응징도 아니며, 더더구나 연좌제도, 부관참시도 아니다.

현승중씨와 같은 고백과 참회 가 선결이며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역사의 부끄러운 짐을 벗자는 것이다.

친일의 역사와 관련된, 민족 정기를 바로잡아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고백과 참회, 화해와 용서 통해 부끄러운 짐 벗어야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밝은 미래 기대 못해

1천 페이지에 1차 106명(2006년), 2차 195명(2007년), 3차 705명(2009년), 모두 1005명의 명단을 실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던 장지연·박정희·안익태·홍난파는 여기서는 제외됐다.

두 명단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민족문제 연구소’는 단순히 ‘일제에 협력한 행위를 한 자’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했으나 ‘진상규명 위원회’는 ‘일

일 인사 명단 발표에 즈음하여 찬반 양측 모두가 아전인수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과연 진정한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직도 회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친일 청산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프랑스의 경우를 많이 인용한다. 프랑스는 4년간의 나치 점령기 부역자를 청산하기 위해 4만 명을 처단하고 99만 명을 처벌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심판을 단행했다.

일에 매진했던 고귀한 선열의 일부 후예는 독립 조국에서 천대받고 건국세력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 기득권층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슬픈 현상이 야기됐다.

그리하여 한국 현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의가 폐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염연

하오(下午)

박취서(약대 60, 남가주)

물결처럼 어디로 향해서들 움직여간다
펠릭이는 깃발들이 이즘(Ism)을 포용한 거리
거리엔, 둔탁한 교동소리같은 저음이 흘렀다

하염없는 고독이란 구름들은
너와 나의 영상(映像)으로 맥갈없는 그림자
거기 번갯빛 속도로 치달아간 흑연(黑淵)이 있어
아무도 손 잡을 수 없는 순결의 공허를 회롱했다

사각 평면의 정점(頂點) 들에서
'이것이 현대다!' 라고 함성이 잇달았다

가없는 성벽을 돌아서
실체없는 그림자가 휘청거린다
수천 갈래로 번져간 시원(始源)에서는
스러지다 못해 반동(反動)되어 온 생명의 스프링이
뿔뿔이 뿔고,
이방(異邦)의 해맑은 쇼 윈도우엔
아직도 힘에 겨운 시름이 있었다

고공에선 구름들이 화염의 꽃놀이를 부르고
시간이란 정지(靜止)위에서 폐 고된 사투(死鬪)를 한다
그러나 이미 지워진 순결의 색채 위엔
순백의 점검(點檢)들이 영원으로 불살라졌다

오!
정말 죽지 못할 불사조의 여명(黎明)이여
무엇이 생명의 수평선을 불러야 했나

(2009년 가을 어느 날 LA다운타운의 모습)



저녁 때 내리는 눈발
김익환(법대 46)

저녁 때 내리는 눈발
산골마을 아낙네
홍달샘물 물길 발복 적시고

산골마을 남정네
등에 진 군불뿔 나무 적시며

산골마을 할아버지 읊내

장날 귀가길 옷자락 적신다

그러나 눈 내리는 날
저녁 때 내리는 눈발

내리는 눈발에 적셔져 지친
산골마을 사람들 저녁 식사
밥맛을 북돋워준다

오순 도순 따뜻하게
맛있게

호랑이의 해

경인년(庚寅年) 세해는 호랑이의 해, 그것도 ‘백호(白虎)’라고 합니다.

백호의 용맹스러움과 지혜가 나쁜 일은 물리쳐 주고, 좋은 일은 많이 생기게 해주기를 SNUA 동문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김명순·최준열 올림>

지부회의 회장단 새해 인사 • 사업계획 • 동문 광장

[3페이지에서 계속]

샌디아고 동창회

[민영기 회장]

저희 San Diego 동창회가 미주 총동창회에 합류한 것은 몇 년 안 되었지만 그동안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협조로 지역 동창회로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0년만에 온다는 금년 백호랑이 해에도 모든 동문들이 선후배간에 거리감 없이 마음 편안하게 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라고 서로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웃고 고개를 해야지 회원간의 친밀감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동창회의 속제는 젊은 동문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한 한 많은 행사를 마련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에도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행사 예정=>봄 야유회 >가을 야유회 >가을 golf 대회 >격월 local hiking >년말 송년 파티

임원단 >회장=민영기(치 61) 858-657-0585, ykmin5155@gmail.com >차기회장=임용갑(공 84) 858-243-2504 wilsony-eem@gmail.com >회계=이춘화(의 78) 858-525-3222 june7lee@sbc-global.net

온타리오 동창회

[총무간사 정영진]

그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500여 명 동문들의 친목과 우의의 매개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동창회를,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사회 및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및 문화공동체로서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학재단 및 자선단체 등록, 지역 및 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와 공연을 진행할 데스크 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연구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보다 발전되고 진화하는 동창회의 기틀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동창회장단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춘계 골프대회(5월 23일) >피크닉(7월 17일) >가족캠프(8월 21일~22일) >추계 골프대회(9월 6일) >가족의 날(11월 13일)

구상중인 주요 사업=>동문 합창단 창단(양노원 순회 연주회) >장기적 사회 공헌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 및 동창회를 자선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T/F 구성 및 활동.



박평일 (농대 69)



한 해 달력이 바뀌고 첫 편지를 씁니다. 숲 속에는 짙은 겨울 안개가 침묵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법정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 하라" 하는 잠언집 제목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사람 마음의 바탕은 선도 악도 아니다. 선과 악은 인연에 따라 일어날 뿐 선한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선해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악해진다

안개 속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이제는 해가 바뀐다고 무슨 특별한 감회나 각오 같은 부질함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도 버리고 싶습니다. 매일 말없이 떠올랐다가 지는 태양처럼 나도 그리 목적없이 살려고 합니다.

지난 나의 말, 글, 그리고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과 하나님께 기도토써 용서를 빕니다.

생각해 보면 남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위선자의 삶을 나는 살아 왔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물처럼,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삶,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기를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개 짙은 아침 숲 속을 산책할 생각입니다. 나와 내가 선한 인연이 되어서 아침내내 발이 시리도록 흠뻑 젖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에 휘청거리 볼 생각입니다.

안개 낀 아침에 버지나 숲 속에서.



Dragonfly Robot

다른 에너지가 필요치 않는 로봇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잠자리 뿐만 아니라 벌이나 나비·메미 등 곤충과 아주 흡사한 Insect Robot 개발 경쟁이 한창이다. 이 곤충 로봇들은 앞으로 군사 첩보용은 물론 소규모 공격용으로도 쓰임새가 아주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양열로 전원이 공급되므로



이상봉 (문리대 65)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려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적지 않은 글을 읽어 보면서... 큰 감명을 받은 문장이 있다면? 바로, 아래의 것입니다!

"Time will say nothing but I told you so."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Time will say nothing but I told you so."

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 점을, 우리들은, 지나간 다음에야 겨우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러니... 다 함께, 깊이, 새겨 두기로 합시다!

그런데... 영어 문장이 이상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시다고요?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그래도...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놓아 보면...

"시간은 우리에게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할 뿐."

이 기회에, 제가,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다음의 것입니다.

"시간이 위대한 스승이기는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학생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버린다. (Time is a great teacher but unfortunately it kills all its pupils.)" 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질없는 짓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알려주는 살아있는 지혜'가 있기는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THE FOUR STAGES OF LIFE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단계)

- 1) You believe in Santa Claus. (산타 클로스를 믿는다)
2) You don't believe in Santa Claus. (산타 클로스를 믿지 않게 된다)
3) You are Santa Claus. (산타 클로스가 돼 선물을 주어야 된다.)
4) You look like Santa Claus. (산타 클로스처럼 늙게 된다.)

간단한 Quiz를 해볼까요? 'Time' 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Double time! Quick time! Slow time!'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해답은 '구보(Run)!' '속보(Quick)!' '보통걸음(Walk)!'



동문광장

여행수기



일본 관광을 다녀와서

천양곡 (외대 63년 입)

어디로 훨훨 떠나 누군가와 이야기 하고 싶은 계절 지난 해 10월이었다. 물 안개에 젖은 연기처럼 무럭무럭 솟아 오르는 동네 안의 조그만 호수를 뒤로 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의대 졸업 40주년 행사에 참가하기 전, 50주년 졸업 선배님 및 분과 같이 일본을 다녀 왔다. 짧은 6일 동안 혼슈 지방을 수박 결핍기식으로 둘러 봤지만 그래도 느낀 점이 있어 그 느낌과 체형을 바탕으로 생각 나는대로 적어 본다.

비행기가 고공 항로에 접어들면 필자에게 두 가지 버릇이 나타난다. 하나는 자신이 지구촌과 아무 연관이 없는 듯 하늘 아래 민초들의 삶을 유심히 감상해보는 것이다. 정신과에서 말하는 이인화현상(depersionalization)이다. 또 하나는 무의 속에 묻혀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때문인지 지나간 삶을 음미해보는 일이다. 반딧불 쫓고 아이스케기 할으며 소나기 피해 원두막으로 뛰어든 유년시절, 내가 바라던 세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아니었기에 무수한 가을 밤의 별들만 세어보던 사춘기 시절, 몰라서 용감했는지 무슨 일이든 겁없이 달려들었던 청년시절,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에 뒤돌아 볼 틈도 없이 누에 실 뿔뿔이만 했던 장년시절, 이제 과거를 현재로 묶어 인생을 결산하는 초로의 나를 발견한다.

36년 빼앗아 간 수 많은 우리 선조들 작품이 일본 국보로 전시돼 있는데도 역사적으로 형의 나라 격인 한국을 부정하려 든다. 어떻게든 자신의 조상들이 고대 한국으로부터 문물을 배워 왔다는 사실이 들뜰날까 불안에 떨고 있는 일본이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는 Korea Phobia로 보였다. 그들을 위해 Prozac을 처방해 주고 싶다. 거의 1천년 이상 일본의 수도로 수많은 사찰과 신사가 있는 교토 거리를 걸으며 일본 문화의 냄새를 맡아 보았다. 그리고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살해돼 전승품으로 가져간 조상들의 귀와 코의 무덤인 미미즈기에 들렀다. 당시 일본 대학생이던 윤동주님이 체포돼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 지으신 '하늘과 바람과 별'을 박숙 동문(Mrs. 조중행)이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묵념한 채 귀 무덤의 조상님, 백제 멸망으로 건너 가신 조상님, 또 임진왜란·정유재란, 2차대전 중 끌려 가신 조상님의 한 넋이 돼 보았다. 이국 땅 허공에 쓸쓸히 떠 다니는 조상님 영혼들께 내가 방 속에 있는 자동차 열쇠와 셀 폰을 드리면 교

도에서 하코네로 가기 위해 일본인들과 섞여 신간선과 시내 버스를 이용했다. 일본인들은 대체적으로 예의 밝고, 단정하고, 친절하면서도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 일본의 길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돼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매우 검소해 미국이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궐같은 개인 집은 보지 못했다. 버스 속에서 잠깐 본 동경의 긴자 거리도 한국의 강남에 비해 조용해 대도시의 Night Life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코네 지역은 옛날 후지산의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진 분지로 어디를 파든지 온천이 나오고 아름다운 호수와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다. 일본도 우리나라 처럼 산이 많은 나라다. 일본의 알프스로 불리는 산악지역에는 일본인의 마음이라는 3,776 미터의 후지산을 비롯, 3천미터가 넘는 산들이 줄줄이 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코네 국립공원에 며칠 묵으며 좋아하는 새들과 꽃들을 필름 속에 담아보고 싶다.

동경은 1633년부터 1867년까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의 소재지였는데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이 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동조궁 내에는 불거리가 많았지만 곳곳 원숭이들의 그림과 조선 종이 내 눈을 끌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재미있게 묘사한 원숭이들의 그림은 정신분석 학자 에릭슨의 인격발달 성장과정과 매우 흡사했다. 인간 내부의 심리현상을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별 차이가 없는 듯 싶다. 조선 종은 1643년 조선왕국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와 화친의 제스처로 조선에서 만든 종을 조선통신사가 동조궁에 선물한 것이다. 일본의 국보급 유물에는 반드시 선명한 글씨로 유물에 대한 설명이 적힌 표말이 붙어 있는데 유독 조선 종에만 표말이 없었다. 종 표면에 작은 글씨로 희미하게 쓰여진 문자를 읽어봐야 사연을 알 수 있다. 관람객 중



부나가·토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중, 두견새가 울

정신적 'Korea Phobia'로 보이는 일본, 과거 만행 사죄로 문화선진국 돼야 해

향의 부모 친지와 연락하고 현 해탄 건너 그리운 조국품으로 돌아 가실 수 있을까?

수도가 됐다. 이 곳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인 명치신궁, 명치시대부터 2차 대전까지 전몰

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 다던 최후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물 모신 신사 동조궁

그것까지 읽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앞서 말했듯 Korea Phobia 환자인 일본이 빨리 회복돼 명실상부한 문화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개발 도상국가 정상회담보다 동조궁의 조선 종 앞에 설명 표말을 새우는 것이 한국 홍보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일행은 유카타 온천장에서 전통 일본 옷(부인들은 기모노)을 입고 기념 사진 찍으며 짙짙한 일본 사람이 돼 보았다. 기분이 싫지는 않았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질이나 유적들을 모은 장소도 스케일이 웅장했다. 국민성 또한 겸소하고, 조용하고, 예의 밝고, 특정한 지역 출신을 싸잡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배제하는 경향은 없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그래서 미국인이 일본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나 자신도 지금까지 일본을 괜히 미워하는 일본 혐오증 환자였는데 이번 여행으로 많이 치유된 느낌이다.

끝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행기간 내내 우리 69년 동기들보다 더 활기있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시는 59년도 선배들을 보고 "저 때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며 후쿠시마 공항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환상에서 깨어나니 비행기는 오사카 공항에 내려가고 있다. 오사카는 일본의 무역 경제 중심지이며 임진왜란·정유재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의 본거지였던 오사카 성이 있는 도시다. 최상의 선택보다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끈질긴 민족, 서양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개화된 군국주의 총칼로 조선을 멸망케 한 일본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일정이 변경돼 오사카 성 안은 보지 못하고 대신 풍신수길 휘하의 한 장군이 나무로 지은 히메지 성을 둘러 보았다. 일본은 자고로 사무라이들이 나라를 이끌어 왔고 각자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성을 건축하는 것이 관례였다. 히메지 성 안에 진열된 옛날 식 조총을 처음 보는 순간 분노와 회한이 머리 속을 스쳐갔다. 사랑방에서 유교의 주자학만 논하던 당시 조선 지배계급이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와 적수가 안 됐지만 조총 때문에 조선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다. 서기 710년부터 8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에는 어머니가 백제인이라는 설이 있는 성덕대왕이 건설한 범룡사가 있다. 그 때부터 불교가 전파돼 인구의 70%가 신자로 일본 어디를 가든 절이 많다. 범룡사 벽화와 최대 목조사찰인 동대사의 대불이 우리 조상의 작품이 확실한 데도 일본은 옛날 자료가 없어 졌다는 핑계로 꼬리를 내린다. 백제 후예들이 건너가 일본 고대문화의 꽃을 피웠고 임진왜란

동문동정

수상·인사·행사

수상

▲박병선(사회교육46~50 재벌서지학자)=최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수여하는 제26회 가톨릭대상 특별상 수상.
▲이호왕(의학48~54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12월 8일 예방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한 공로로 제6회 서재필 의학상 수상.

▲김순신(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12월 17일 제58회 크리스천 문학신인상(수필부문) 수상.
▲노인환(경제54~58 삼일양행 대표)=12월 10일 서초V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우수봉사자로서 초구청장 표창장 수상.
▲윤세영(행정56~61 SBS 회장·본회 부회장)=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민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

▲박노희(치의학68졸 미 UCLA 치과대학장)=오는 2월 미국 치의학교육협회 산하 기스재단으로부터 치의학 부문 최고 권위의 기스(Gies)상 수상.
▲김훈동(농학63~69 수원예총회장)=12월 11일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부문 대상(경기지역) 수상.
▲염정임(독문63~67 수필가)=12월 9일 수필집 '작은 상자, 큰 상자'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25회 펜문학상(수필부문) 수상.

▲장순근(지질과학65~69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12월 9일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의학(도서부문) 수상.
▲심지연(정치68~75 경남대 교수)=12월 5일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모교 윤천주 전 총장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인제(仁齋) 학술상 수상.

▲김중섭(사회사업66~70 스페코 그룹 회장·본회 부회장)=12월 15일 대한민국의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골드윈코리아 회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기업가상(소비재부문)수상.
▲이희범(전자공학67~71 SIX 에너지 회장)=12월 8일 서울사대부고동창회로부터 제11회 자랑스러운 부교인상 수상.
▲유우익(지리67~71 주중대사)=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이수창(수의학67~71 삼성생명 사장)=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문창극(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판악인론인회장·본보 논설위원)=1월 18일 언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김종훈(건축69~73 한미파스스 회장)=12월 4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10일 제5회 한국CEO그랑프리 및 자랑스런 서강MBA상 수상.

▲이기수(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12월 1일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안병관(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12월 2일 아시아기자협회 총회에서 47년간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공공봉사 분야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공로상 수상.
▲최지성(무역71~77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문 사장)=12월 4일 한국통신학회 올해의 정보통신대상 수상.
▲김명환(수학73~7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교무처장)=12월 18일 대한수학회 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김학범(환대원교수)=12월 8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기여공로로 옥관 문화훈장 수훈.
▲한옥희(화학7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12월 1일 제9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학부문) 수상.
▲우성봉(농공학79~83 시인)=국제문화예술협회 문학상 시상식서 열린문학 신인상 수상.
▲김택진(전자공학85~89 엔씨소프트사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 기업가상(엔터테인먼트부문) 수상.
▲심갑보(AMP 3기 삼익THK 부회장)=한국상품학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상품대상(마케팅혁신부문) 수상.

▲안호원(HPM 6기 부천대 교수·수필가·시인)=12월 29일 한국시인구협회주관 제3회 박재삼문학상 대상수상.

▲고건(정치56~60 전 국무총리·기후변화센터 이사장)=1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이상배(행정58~62 전서울시장·전 국회의원)=12월 15일 제12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권병현(행정63졸 전 주중대사·한중문화청소년 미래센터 대표)=12월 4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초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SLM)챔피언 녹색대사에 임명.
▲이혁관(사회85~89 중앙일보 경제색전편집팀 차장)=12월 3일 임기 2년의 제44대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에 취임.

▲허남주(임학59~65 광릉숲보존협회 회장)=모교 임학동문 동산모임인 '서림산우회' 제2대 회장에 선임.
▲박홍일(영어교육60~64 호서대 초빙교수)=1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제7대 이사장에 선임.
▲김승용(외교61~67 한국일보 전 파리특파원·시사저널 편집국장·국경없는세상 이사장)=12월 26일부터 케이블 TV범 불 방송(Court TV) 대담프로그램 '김승용의 휴먼터치' 진행.
▲이성준(고교인류64~69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본보 논설위원)=1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
▲황우여(법학65~69 국회의원)=최근 팔라우공화국 로르에서 열린 제 14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의장에 선출.
▲김인규(정치69~73 KBS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12월 17일 제17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선출.
▲최영희(의학74~80 단국대 전 교수·우리건강의학센터 원장)=제11회 대한영상의학회의 학과 개원의 협의회 추계 연수교육 및 총회서 회장으로 선임.
▲김용식(외교79~83 성신여대 교수)=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김장실(행대원79~81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12월 18일 임기 3년의 서울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
▲윤종필(HPM 16기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12월 10일 사단법인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에 선임.
▲조승룡(물리91~95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12월 22일 KAIST 공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교수로 부임.

▲박성태(의학58~64 전 국회의원·예일의원장)=최근 경상남도 의사의 날 종합 학술대회에서 '의사, 정치, 문학, 음악과 나'를 주제로 특별강연.
▲선우호중(토목공학59~63 광주과학기술원장)=12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서 광주과학기술원의 2009년 세계대학평가 14위(교수 1인당 논문인용 부문)축하연 개최.
▲권성(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12월 15일 한국언론재단 무궁화홀서 전임 언론중재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16일 서울공릉 새터민정착지원센터를 방문 성금 전달.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12월 23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교회 기념문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 봉정식 개최.
▲이명훈(의학60~66 서울시의사회 교문)=12월 3~7일 코엑스 국제발명특허 전시회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명명이 나오는 청진기' 등 발명특허품 도안시리즈 전시.
▲전영혜(기약63~67 경희대 교수·피아니스트)=12월 28일 남서울교회 본당서 오르간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마흐 음악연주회 개최.
▲이광택(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12월 21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개최. Inius 2009'에서 워크숍 행사 진행.

▲김수진(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12월 17일 제58회 크리스천 문학신인상(수필부문) 수상.
▲노인환(경제54~58 삼일양행 대표)=12월 10일 서초V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우수봉사자로서 초구청장 표창장 수상.
▲윤세영(행정56~61 SBS 회장·본회 부회장)=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민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

▲박노희(치의학68졸 미 UCLA 치과대학장)=오는 2월 미국 치의학교육협회 산하 기스재단으로부터 치의학 부문 최고 권위의 기스(Gies)상 수상.
▲김훈동(농학63~69 수원예총회장)=12월 11일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부문 대상(경기지역) 수상.
▲염정임(독문63~67 수필가)=12월 9일 수필집 '작은 상자, 큰 상자'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25회 펜문학상(수필부문) 수상.

▲장순근(지질과학65~69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12월 9일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의학(도서부문) 수상.
▲심지연(정치68~75 경남대 교수)=12월 5일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모교 윤천주 전 총장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인제(仁齋) 학술상 수상.

▲김중섭(사회사업66~70 스페코 그룹 회장·본회 부회장)=12월 15일 대한민국의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골드윈코리아 회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기업가상(소비재부문)수상.
▲이희범(전자공학67~71 SIX 에너지 회장)=12월 8일 서울사대부고동창회로부터 제11회 자랑스러운 부교인상 수상.
▲유우익(지리67~71 주중대사)=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이수창(수의학67~71 삼성생명 사장)=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문창극(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판악인론인회장·본보 논설위원)=1월 18일 언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김종훈(건축69~73 한미파스스 회장)=12월 4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10일 제5회 한국CEO그랑프리 및 자랑스런 서강MBA상 수상.

▲이기수(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12월 1일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안병관(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12월 2일 아시아기자협회 총회에서 47년간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공공봉사 분야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공로상 수상.
▲최지성(무역71~77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문 사장)=12월 4일 한국통신학회 올해의 정보통신대상 수상.
▲김명환(수학73~7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교무처장)=12월 18일 대한수학회 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김학범(환대원교수)=12월 8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기여공로로 옥관 문화훈장 수훈.
▲한옥희(화학7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12월 1일 제9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학부문) 수상.
▲우성봉(농공학79~83 시인)=국제문화예술협회 문학상 시상식서 열린문학 신인상 수상.
▲김택진(전자공학85~89 엔씨소프트사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 기업가상(엔터테인먼트부문) 수상.
▲심갑보(AMP 3기 삼익THK 부회장)=한국상품학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상품대상(마케팅혁신부문) 수상.

▲안호원(HPM 6기 부천대 교수·수필가·시인)=12월 29일 한국시인구협회주관 제3회 박재삼문학상 대상수상.

▲고건(정치56~60 전 국무총리·기후변화센터 이사장)=1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이상배(행정58~62 전서울시장·전 국회의원)=12월 15일 제12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권병현(행정63졸 전 주중대사·한중문화청소년 미래센터 대표)=12월 4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초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SLM)챔피언 녹색대사에 임명.
▲이혁관(사회85~89 중앙일보 경제색전편집팀 차장)=12월 3일 임기 2년의 제44대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에 취임.

▲허남주(임학59~65 광릉숲보존협회 회장)=모교 임학동문 동산모임인 '서림산우회' 제2대 회장에 선임.
▲박홍일(영어교육60~64 호서대 초빙교수)=1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제7대 이사장에 선임.
▲김승용(외교61~67 한국일보 전 파리특파원·시사저널 편집국장·국경없는세상 이사장)=12월 26일부터 케이블 TV범 불 방송(Court TV) 대담프로그램 '김승용의 휴먼터치' 진행.
▲이성준(고교인류64~69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본보 논설위원)=1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
▲황우여(법학65~69 국회의원)=최근 팔라우공화국 로르에서 열린 제 14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의장에 선출.

▲김인규(정치69~73 KBS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12월 17일 제17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선출.
▲최영희(의학74~80 단국대 전 교수·우리건강의학센터 원장)=제11회 대한영상의학회의 학과 개원의 협의회 추계 연수교육 및 총회서 회장으로 선임.
▲김용식(외교79~83 성신여대 교수)=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김장실(행대원79~81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12월 18일 임기 3년의 서울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
▲윤종필(HPM 16기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12월 10일 사단법인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에 선임.
▲조승룡(물리91~95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12월 22일 KAIST 공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교수로 부임.

▲박성태(의학58~64 전 국회의원·예일의원장)=최근 경상남도 의사의 날 종합 학술대회에서 '의사, 정치, 문학, 음악과 나'를 주제로 특별강연.
▲선우호중(토목공학59~63 광주과학기술원장)=12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서 광주과학기술원의 2009년 세계대학평가 14위(교수 1인당 논문인용 부문)축하연 개최.
▲권성(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12월 15일 한국언론재단 무궁화홀서 전임 언론중재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16일 서울공릉 새터민정착지원센터를 방문 성금 전달.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12월 23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교회 기념문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 봉정식 개최.
▲이명훈(의학60~66 서울시의사회 교문)=12월 3~7일 코엑스 국제발명특허 전시회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명명이 나오는 청진기' 등 발명특허품 도안시리즈 전시.
▲전영혜(기약63~67 경희대 교수·피아니스트)=12월 28일 남서울교회 본당서 오르간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마흐 음악연주회 개최.
▲이광택(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12월 21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개최. Inius 2009'에서 워크숍 행사 진행.

▲김수진(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12월 17일 제58회 크리스천 문학신인상(수필부문) 수상.
▲노인환(경제54~58 삼일양행 대표)=12월 10일 서초V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우수봉사자로서 초구청장 표창장 수상.
▲윤세영(행정56~61 SBS 회장·본회 부회장)=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민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

▲박노희(치의학68졸 미 UCLA 치과대학장)=오는 2월 미국 치의학교육협회 산하 기스재단으로부터 치의학 부문 최고 권위의 기스(Gies)상 수상.
▲김훈동(농학63~69 수원예총회장)=12월 11일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부문 대상(경기지역) 수상.
▲염정임(독문63~67 수필가)=12월 9일 수필집 '작은 상자, 큰 상자'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25회 펜문학상(수필부문) 수상.

▲장순근(지질과학65~69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12월 9일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의학(도서부문) 수상.
▲심지연(정치68~75 경남대 교수)=12월 5일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모교 윤천주 전 총장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인제(仁齋) 학술상 수상.

▲김중섭(사회사업66~70 스페코 그룹 회장·본회 부회장)=12월 15일 대한민국의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골드윈코리아 회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기업가상(소비재부문)수상.
▲이희범(전자공학67~71 SIX 에너지 회장)=12월 8일 서울사대부고동창회로부터 제11회 자랑스러운 부교인상 수상.
▲유우익(지리67~71 주중대사)=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이수창(수의학67~71 삼성생명 사장)=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문창극(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판악인론인회장·본보 논설위원)=1월 18일 언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김종훈(건축69~73 한미파스스 회장)=12월 4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10일 제5회 한국CEO그랑프리 및 자랑스런 서강MBA상 수상.

▲이기수(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12월 1일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안병관(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12월 2일 아시아기자협회 총회에서 47년간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공공봉사 분야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공로상 수상.
▲최지성(무역71~77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문 사장)=12월 4일 한국통신학회 올해의 정보통신대상 수상.
▲김명환(수학73~7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교무처장)=12월 18일 대한수학회 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김학범(환대원교수)=12월 8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기여공로로 옥관 문화훈장 수훈.
▲한옥희(화학7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12월 1일 제9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학부문) 수상.
▲우성봉(농공학79~83 시인)=국제문화예술협회 문학상 시상식서 열린문학 신인상 수상.
▲김택진(전자공학85~89 엔씨소프트사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 기업가상(엔터테인먼트부문) 수상.
▲심갑보(AMP 3기 삼익THK 부회장)=한국상품학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상품대상(마케팅혁신부문) 수상.

▲안호원(HPM 6기 부천대 교수·수필가·시인)=12월 29일 한국시인구협회주관 제3회 박재삼문학상 대상수상.

▲고건(정치56~60 전 국무총리·기후변화센터 이사장)=1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이상배(행정58~62 전서울시장·전 국회의원)=12월 15일 제12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권병현(행정63졸 전 주중대사·한중문화청소년 미래센터 대표)=12월 4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초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SLM)챔피언 녹색대사에 임명.
▲이혁관(사회85~89 중앙일보 경제색전편집팀 차장)=12월 3일 임기 2년의 제44대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에 취임.

▲허남주(임학59~65 광릉숲보존협회 회장)=모교 임학동문 동산모임인 '서림산우회' 제2대 회장에 선임.
▲박홍일(영어교육60~64 호서대 초빙교수)=1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제7대 이사장에 선임.
▲김승용(외교61~67 한국일보 전 파리특파원·시사저널 편집국장·국경없는세상 이사장)=12월 26일부터 케이블 TV범 불 방송(Court TV) 대담프로그램 '김승용의 휴먼터치' 진행.
▲이성준(고교인류64~69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본보 논설위원)=1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
▲황우여(법학65~69 국회의원)=최근 팔라우공화국 로르에서 열린 제 14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의장에 선출.

▲김인규(정치69~73 KBS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12월 17일 제17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선출.
▲최영희(의학74~80 단국대 전 교수·우리건강의학센터 원장)=제11회 대한영상의학회의 학과 개원의 협의회 추계 연수교육 및 총회서 회장으로 선임.
▲김용식(외교79~83 성신여대 교수)=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김장실(행대원79~81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12월 18일 임기 3년의 서울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
▲윤종필(HPM 16기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12월 10일 사단법인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에 선임.
▲조승룡(물리91~95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12월 22일 KAIST 공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교수로 부임.

▲박성태(의학58~64 전 국회의원·예일의원장)=최근 경상남도 의사의 날 종합 학술대회에서 '의사, 정치, 문학, 음악과 나'를 주제로 특별강연.
▲선우호중(토목공학59~63 광주과학기술원장)=12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서 광주과학기술원의 2009년 세계대학평가 14위(교수 1인당 논문인용 부문)축하연 개최.
▲권성(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12월 15일 한국언론재단 무궁화홀서 전임 언론중재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16일 서울공릉 새터민정착지원센터를 방문 성금 전달.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12월 23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교회 기념문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 봉정식 개최.
▲이명훈(의학60~66 서울시의사회 교문)=12월 3~7일 코엑스 국제발명특허 전시회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명명이 나오는 청진기' 등 발명특허품 도안시리즈 전시.
▲전영혜(기약63~67 경희대 교수·피아니스트)=12월 28일 남서울교회 본당서 오르간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마흐 음악연주회 개최.
▲이광택(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12월 21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개최. Inius 2009'에서 워크숍 행사 진행.

▲김수진(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12월 17일 제58회 크리스천 문학신인상(수필부문) 수상.
▲노인환(경제54~58 삼일양행 대표)=12월 10일 서초V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우수봉사자로서 초구청장 표창장 수상.
▲윤세영(행정56~61 SBS 회장·본회 부회장)=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민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

▲박노희(치의학68졸 미 UCLA 치과대학장)=오는 2월 미국 치의학교육협회 산하 기스재단으로부터 치의학 부문 최고 권위의 기스(Gies)상 수상.
▲김훈동(농학63~69 수원예총회장)=12월 11일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부문 대상(경기지역) 수상.
▲염정임(독문63~67 수필가)=12월 9일 수필집 '작은 상자, 큰 상자'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25회 펜문학상(수필부문) 수상.

▲장순근(지질과학65~69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12월 9일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의학(도서부문) 수상.
▲심지연(정치68~75 경남대 교수)=12월 5일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모교 윤천주 전 총장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인제(仁齋) 학술상 수상.

▲김중섭(사회사업66~70 스페코 그룹 회장·본회 부회장)=12월 15일 대한민국의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골드윈코리아 회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기업가상(소비재부문)수상.
▲이희범(전자공학67~71 SIX 에너지 회장)=12월 8일 서울사대부고동창회로부터 제11회 자랑스러운 부교인상 수상.
▲유우익(지리67~71 주중대사)=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이수창(수의학67~71 삼성생명 사장)=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문창극(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판악인론인회장·본보 논설위원)=1월 18일 언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김종훈(건축69~73 한미파스스 회장)=12월 4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10일 제5회 한국CEO그랑프리 및 자랑스런 서강MBA상 수상.

▲이기수(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12월 1일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안병관(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12월 2일 아시아기자협회 총회에서 47년간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공공봉사 분야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공로상 수상.
▲최지성(무역71~77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문 사장)=12월 4일 한국통신학회 올해의 정보통신대상 수상.
▲김명환(수학73~7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교무처장)=12월 18일 대한수학회 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김학범(환대원교수)=12월 8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기여공로로 옥관 문화훈장 수훈.
▲한옥희(화학7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12월 1일 제9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학부문) 수상.
▲우성봉(농공학79~83 시인)=국제문화예술협회 문학상 시상식서 열린문학 신인상 수상.
▲김택진(전자공학85~89 엔씨소프트사장)=12월 10일 서울신라호텔서 언스트앤영 한영회제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 기업가상(엔터테인먼트부문) 수상.
▲심갑보(AMP 3기 삼익THK 부회장)=한국상품학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상품대상(마케팅혁신부문) 수상.

▲안호원(HPM 6기 부천대 교수·수필가·시인)=12월 29일 한국시인구협회주관 제3회 박재삼문학상 대상수상.

▲고건(정치56~60 전 국무총리·기후변화센터 이사장)=1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이상배(행정58~62 전서울시장·전 국회의원)=12월 15일 제12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권병현(행정63졸 전 주중대사·한중문화청소년 미래센터 대표)=12월 4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초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SLM)챔피언 녹색대사에 임명.
▲이혁관(사회85~89 중앙일보 경제색전편집팀 차장)=12월 3일 임기 2년의 제44대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에 취임.

▲허남주(임학59~65 광릉숲보존협회 회장)=모교 임학동문 동산모임인 '서림산우회' 제2대 회장에 선임.
▲박홍일(영어교육60~64 호서대 초빙교수)=1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제7대 이사장에 선임.
▲김승용(외교61~67 한국일보 전 파리특파원·시사저널 편집국장·국경없는세상 이사장)=12월 26일부터 케이블 TV범 불 방송(Court TV) 대담프로그램 '김승용의 휴먼터치' 진행.
▲이성준(고교인류64~69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본보 논설위원)=1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
▲황우여(법학65~69 국회의원)=최근 팔라우공화국 로르에서 열린 제 14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의장에 선출.

▲김인규(정치69~73 KBS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12월 17일 제17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선출.
▲최영희(의학74~80 단국대 전 교수·우리건강의학센터 원장)=제11회 대한영상의학회의 학과 개원의 협의회 추계 연수교육 및 총회서 회장으로 선임.
▲김용식(외교79~83 성신여대 교수)=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김장실(행대원79~81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12월 18일 임기 3년의 서울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
▲윤종필(HPM 16기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12월 10일 사단법인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에 선임.
▲조승룡(물리91~95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12월 22일 KAIST 공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교수로 부임.

▲박성태(의학58~64 전 국회의원·예일의원장)=최근 경상남도 의사의 날 종합 학술대회에서 '의사, 정치, 문학, 음악과 나'를 주제로 특별강연.
▲선우호중(토목공학59~63 광주과학기술원장)=12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서 광주과학기술원의 2009년 세계대학평가 14위(교수 1인당 논문인용 부문)축하연 개최.
▲권성(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12월 15일 한국언론재단 무궁화홀서 전임 언론중재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16일 서울공릉 새터민정착지원센터를 방문 성금 전달.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12월 23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교회 기념문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 봉정식 개최.
▲이명훈(의학60~66 서울시의사회 교문)=12월 3~7일 코엑스 국제발명특허 전시회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명명이 나오는 청진기' 등 발명특허품 도안시리즈 전시.
▲전영혜(기약63~67 경희대 교수·피아니스트)=12월 28일 남서울교회 본당서 오르간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마흐 음악연주회 개최.
▲이광택(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12월 21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개최. Inius 2009'에서 워크숍 행사 진행.

▲김수진(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12월 17일 제58회 크리스천 문학신인상(수필부문) 수상.
▲노인환(경제54~58 삼일양행 대표)=12월 10일 서초V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우수봉사자로서 초구청장 표창장 수상.
▲윤세영(행정56~61 SBS 회장·본회 부회장)=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민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

▲박노희(치의학68졸 미 UCLA 치과대학장)=오는 2월 미국 치의학교육협회 산하 기스재단으로부터 치의학 부문 최고 권위의 기스(Gies)상 수상.
▲김훈동(농학63~69 수원예총회장)=12월 11일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부문 대상(경기지역) 수상.
▲염정임(독문63~67 수필가)=12월 9일 수필집 '작은 상자, 큰 상자'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25회 펜문학상(수필부문) 수상.

<14페이지에 계속>

음악칼럼

팝송 이야기<4> Tin Pan Alley



주혜정(음대 92)

지난 번에는 초기 Tin Pan Alley 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흔히 황금기라 말하는 1930-40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Tin Pan Alley (이하 T.P.A) 곡들은 대부분 TV 쇼를 위해서 작곡되었습니다. 형식은 Verse(절)-Refrain(후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erse는 일반적으로 곡의 극적인 내용이나 감정을 제시합니다.

19세기 대중노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1920년대에 와서는 그 중요함이 많이 없어졌고 오늘 날에는 T.P.A 노래 연주시 Verse 는 거의 연주되지 않습니다.

Refrain은 흔히 우리가 오늘 날 '노래' 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대개 AABA의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A 섹션은 주요 멜로디와 가사의 기본 패턴을 제시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멜로디로 한번 더 반복되며 때때로 약간의 멜로디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B섹션은 'Bridge' 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멜로디·가사·코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A 섹션이 새로운 가사로 반복되면 곡이 끝납니다. 이 구조는 오늘 날 대중음악의 기본적 형식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T.P.A는 주로 작은 악기 편성으로 연주되었는데, 이때에는 더 큰 악기편성(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이 쓰였습니다.

가사는 주로 사랑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1인칭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초창기 T.P.A와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주요 작곡가로는 George Gershwin·Irving·Berlin·Richard Rogers·Cole Porter가 있습니다.

T.P.A작곡가들은 오늘 날 흔히 'Standard' 라 불리는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했으며 이 곡들은 현대의 재즈 뮤지션과 가수들에게 주요한 레퍼토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곡가 George Gershwin

이들 중에 Gershwin(1898-1937)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

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Song plugger' 로 음악활동을 시작했으며 스무 살 때에는 브로드웨이의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고 서른 살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들이 TV와 영화에 쓰였으며, 또 많은 곡들은 재즈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Louis Armstrong·Al Jolson·Bing Crosby·John Coltrane·Frank Sinatra·Billie Holiday·Miles Davis·Madonna·Natalie Cole·Sting 등이 Gershwin의 곡들을 녹음했습니다.

Gershwin은 프랑스 작곡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Gershwin의 관현악 편곡법은 Ravel과 많이 유사합니다.

프랑스의 영향 외에도 Alban Berg·Dmitri Shostakovich·Igor Stravinsky·Arnold Schoenberg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Gershwin의 대중음악과 클래식 작품들에는 당김음과 Blue note (재즈에 쓰이는 특정 음들)가 사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다른 동시대의 클래식 작곡가들과 차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 'Porgy and Bess' 는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미 흑인음악의 모든 요소가 잘 섞여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George Gershwin

Gershwin의 곡 중 'I Got Rhythm'은 대표적 곡입니다. Gershwin이 작곡하고 그의 형인 Ira Gershwin이 작사자입니다. <Acropolistimes.com>

<13페이지에서 계속>

▲김창수(응용미술82~86 경원대 교수)=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International Artist's Book Workshop Vilnius 2009'에서 워크

숍 행사 진행. ▲김용화(기악96 ~01 피아니스트)=1월 8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라벨, 페토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박영순(ACAD 43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대표)=최근 사무실을 경기도 분당 구정자동 산위브 파빌리온 B-1318호로 이전.

▲김시내(기악99-03 한세대 강사·첼리스트)=1월 11일 서울 예술의전

당 리사이틀홀에서 '아우름:Expression II- 첼로와 대금의 만남' 개최.

▲김진돈(HPM 4기 운제당한의원장·송파문인협회장)=최근 서울 고덕중·강동고에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강연.또 12월 16일 한성백일장·시화전시회·송파문학출판기념회·문학나눔콘서트 개최.

▲박명운(보대원74~76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과인트리클럽 창립51주년 축하 및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 개최. <고국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조성식(경성대학46졸 고려대 명예교수)=12월 23일 별세(87세)
- ▲박태원(정치46~50 삼전알미늄 전 대표)=12월 3일 별세(87세)
- ▲이극찬(정치46~50 연세대 명예교수)=12월 4일 별세(85세)
- ▲김동신(법학 53~57 단국대 전 부총장)=12월 14일 별세(75세)
- ▲권덕주(중문 54~58 숙명여대 명예교수)=12월 24일 별세(75세)
- ▲곽일훈(행정 60~65 국제PTP 아태 의장)=12월 27일 별세(68세)
- ▲노형민(기계설계 73~77 K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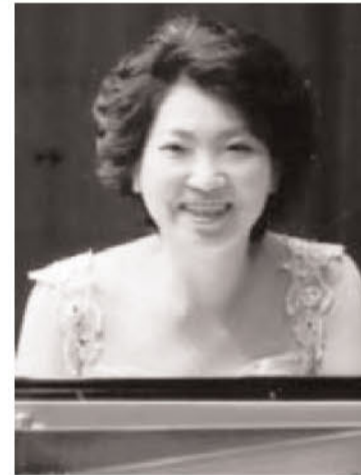
공연

■ 김정은 바이올린독주회 - 1월 24일 예술의전당 독일 쾰른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김정은(기악00-04, 사진 왼쪽)동문이 1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모차르트, 야나체크, 바르토크, 왁스만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 신민정 피아노독주회 - 1월 26일 예술의전당 백석예술대 신민정(기악 85



~ 89)교수(사진 오른쪽)가 1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가데·그리그·닐센·시벨리우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 전 연구소장)=12월 3일 별세(55세)
- ▲김대병(제약 74~78 대전식약청 전 청장)=12월 10일 별세(54세)
- ▲이은중(신문 81~85 SBS 특임 부장)=12월 8일 별세(46세)
- ▲원철용(경제 92~99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12월 17일 별세(37세)
- ▲서석제(ACAD 18기 전 국회의원)=12월 26일 별세(74세)
- ▲이세훈(ACAD 26기 세하종합건축 대표)=12월 4일 별세(69세)
- ▲박인배(AMP 30기 해태제과

전 사장)=12월 9일 별세(68세)

<미주 동문 부음>

- ▲지명식(사대 65)=지병으로 지난 1월2일 시카고에서 별세
- ▲최준(치대)=지난 12월30일 시카고에서 사고로 별세.
- ▲오수경(공대 76) 동문 부친상=숙환으로 지난 12월9일 한국에서 별세.
- ▲이승택(수의대75) 동문 부친상=지난 12월 2일 별세.
- ▲전선옥(법 50)상배=하틀랜드 동창회 전선옥 3대 이사장 부군 매영 박사 8월4일 별세.

- ▲이현(공대 79, 뱅쿠버 동창회 부회장) 모친상=지난 10월 11일 한국에서 별세
- ▲최호승(사대 58)=지병으로 2월 24일 별세
- ▲황숙진(농대 85) 부친상= 1월 21일 한국에서 별세.

이 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감입니다. 매달 10일까지 보내주시면 다음 달 동창회보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보낼 곳은 '456 Frontage Rd.Ste 3 Northfield IL 60093' e-Mail : snuaahq@gmail.com

지역 동창회 소식 미네소타·밴쿠버



동창회 회원 중 한 사람이 회원들과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힘차게 웃을 던지고 있다.

미네소타 동창회

2010년 신입 회장단 출범

미네소타 지역 동창회가 지난 해 연말 모임을 통해 2010년 회장단을 선출했다. 박가네 음식점에서 오후 5시부터 등록을 시작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 경부터 본격 연말 총회가 시작됐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교가 제창에 이어 회장 인사말, 동문 회원 자기 소개, PPT사진 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자기 소개 시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말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회원들간 반응은 매우 좋았다. 특히 타 주로 이주한 김용재·강형길 동문의 영상편지가 공개돼 이날 동문들의 마음을 더욱 반갑게 해주었다. 이어 동창회 Bylaw수정과 관련하여 찬성 의결됐으며 차기 동창회를 이끌 회장 선출 투표에서 신학철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변우진 동문이 차기 감사로 선임됐다. 이날 새로 선출된 2010 동창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동창회장=김영석(73 공대

기계공학) ▶차기회장=신학철 ▶감사=변우진 ▶총무=변정민 ▶재무간사=박장연 ▶체육간사=임항교 ▶YB(young boy)간사=미정 ▶당연직이사=86 학년부 터. 이와 함

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 장학금을 받은 배효미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박미정 동문의 가곡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더욱이 이만희 여사의 탄담이 또

밴쿠버 동창회

푸짐한찬조에 일찬 연말파티

2009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지난 12월 18일 코퀴틀람 Best Western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들과 가족, 관악상 비동문 수상자인 김연아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이진 관악상 및 장학생 초청 손님인 김재상님 및 한동엽님 등 총 80여 분이 참가했다. 1부 정기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 한 해를 이끌어 갈 차기 회장으로 59학번 심리학박사 박하일 동문을 선출했다. 믿음직한 회장이 선출돼 기대가 크다.

2부 여흥 시간에는 2009년도 홍보를 맡은 80학번 경제학과 심진택 동문의 재미난 사회로 각자 노래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경품 추첨도 실시됐는데 당첨된 분들이 다양한 선물을 가져가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 연말 파티 행사에는 특히 '한아름 마트' CEO인 경영학과 70학번 이홍일 동문이 배를 55상자 씩이나 증정해주었다. '박병우 부동산' 과 'GTC 유학원' 을 운영중인 경제학과 76학번 박병우 동문께서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200달러를 도네이션해주었다.

또한 건강식품 '오로니아'를 운영하는 경제학과 80학번 심진택 동문이 많은 경품을 원가에 공급해주었다. 이홍일 선배와 외환은행 지점장 경제학과 80학번 과철승 동문께서는 2010년도 달력을 기증해주었다. 이 밖에 김재상님과 한동엽님도 금일봉을 각각 전해주시어 동창회 행사를 더욱 푸짐하게 해주었다. 동문 제위들의 이같은 넉넉한 도네이션과 상품 찬조 덕분에 이날 행사가 보다 알차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찬조해주신 모든 동문들 및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동문과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총무 주부호>



계 박장연 재무 감사에 의한 결산보고 후 배효미 동문(음대 피아노 2001)에 대한 동문회 차원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8시 이후부터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주로 여흥과 경품 추첨행사로 연말 모임 분위기를

한 좌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이후 특별 웃놀이 경기와 남성 합창단 공연후 경품 추첨으로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총무 변정민(기계항공 88)>

지역 동창회 소식

뉴욕·하틀랜드·워싱턴

뉴욕 동창회

플러싱에서 송년의 밤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한경수)가 지난 해 12월 4일, 뉴욕 퀸즈, 플러싱의 대동 연회장에서 열렸다.

동문과 가족, 그리고 친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진 것이다.

지난 해는 경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서로 안부를 나눴다.

그리고 다 가을 새해에 대한

한 격려와 다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경수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



동문과 가족 등 200여 명이 모인 송년 연회장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모교의 교가를 합창하고 있다.

된 이날 행사는 박인국 주 유엔 대표부 대사의 연설, 공로패 증정, 골든클럽(회장 이준행)회원 생신 선물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장학금 수여, 여흥,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 내용으로 참여한 동문

들과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조원진(음대 기악과 03, Yale대)·황소인(미대 디자인 01, MIT대)·

정상훈(공대 도시공학 04, Harvard대)·김현섭(법대 법학부 01, NYU대)·박무찬(공대 건축학과 03, Columbia)동문 등 총 5명이 각각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이 날 생신을 맞은 골든클럽 회원들 모두에 대한 선물 증정도 함께 이뤄졌다.

<한경수 동창회장>

↑한경수 뉴욕지역 동창회장이 개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 동창회

2010 신입 회장단 선출

워싱턴 주 동창회가 연말 총회와 임원회의를 통해 새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단과 평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신창범(법대 73)
▶부회장= 이승택(수의대 75)
▶평의원(5명)= 신창범(법대 73)·이승택(수의대 75)·김재훈(공대 72)·윤태근(상대 69)·맹병규(문리 70).

워싱턴 주 동창회에 할당된 평의원이 지금까지는 3명이었는데, 2009년도 5월 Chicago 평의원회 이후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음은 동창회장의 송년 인사말을 요약한 것이다.

“웃기에 스며드는 찬 바람에도 흘러가는 세월을 느낍니다 아쉬움으로 지난 해를 돌이켜 보고,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새해 희망으로 마음 설레는 때입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워싱턴주 동문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송년모임에 동문 선후배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김재훈>



하틀랜드 지역 동창회 동문들이 연말 및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

아틀랜드 동창회

한해 돌아보며 '송구영신'

지난 12월12일 Farley St 배규영 회장 자택에서 송년 및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졌다.

김치·불고기·밥·와인은 회장님께서 준비하고 캔사스 지역 동문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단 타 주에서 참석하는 동창 가족이나 유학생 가족들은 음식 준비를 면제해주었을 뿐 아니라 사전 연락으로 동창 자택에 민박을 주선했었다).

이날 2009 사업보고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가졌다.

2009년 현재 정회원은 총 92명(AR 3, IA 18, KS 28, MO 13, NE 11, OK 19)으로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보고됐다.

▶미주 총 동창회=지난 5월

15~17일 시카고에서 열린 18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했다.

하틀랜드 지역 동창회 평의원수가 중전의 3 명에서 5 명으로 늘어 배규영(사대 68) 수석 부회장, 오명순(가정 69)간사, 네브라스카주 부회장 오태요(의대 62) 동문 및 김명자(문리 66) 회장이 평의원 회의에 참석했다.

16일 만찬행사 중 김명자 동문이 임광수 총 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고, 배규영 동문은 7 명의 세무 감사위원 중 한사람으로 증책을 맡게 됐다.

17일 골프대회에서 오명순 동문이 1등을 차지해 동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지부창설 동문 정족수가 과거 40명에서 30명으로 조정됐다.

▶춘계 친선 골프대회 및 임원회의=5월 30일 Deer Creek Country Club에서 춘계 친선 골프대회가 있었다.

이제명 이사장 덕에서 pot-luck dinner 에 이어 임원회의가 있었다.

하틀랜드 지부 정기총회는 9월26일 Overland Park Marriott Hotel에서 열기로 하고, Keynote Speech는 김준 동문께서 하기로 했다.

▶임원이사회= 총동창회 및 동문의 밤 행사를 위해 8월 22일 초가 식당에서 임원 이사회를 가졌다.

▶연주회=11월 22일 양승렬 동문의 Hansel and Gretel 연주회가 White Recital Hall, James C. Olson Performing Arts Center, 4949 Cherry에서 열렸다

▶장학사업=2009년 윤하나·이찬양·정순화 양 등 3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주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사업 수혜자는 이로써 총 39명이 됐다.

<배규영 동창회장>

지역 동창회 소식 필라델피아·휴스턴



필라델피아 동창회 청소년 성금전달과 세미나

필라델피아 동문회(회장 손계옥 77)가 대채로운 내용으로 연말 송년회를 개최해 동문은 물론 한인 동포들로부터도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월12일 필라델피아 외곽 노리스타운의 어거스트문 연회장(동문 류용진 59입학 경영)에서 열린 송년회에 동문 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 날 행사 중 지난 해 11월 21일 열린 가을음악회 수익금 가운데 3천달러를 뉴 비전 청소년 재단에 전달했다.

한 편 이진구 전 미주 동창회장이 멀리 뉴욕에서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하모니카 독주를 들려 주었다.

이 전 회장은 끊이지 않는 박수에 여러 차례 앵콜 송을 들려 주기도 했다.

이 날 세미나 강사로 초대된 광금주 교수(모교 심리학파)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한국

의 인 구 및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나이에 0.7을 곱한 나이야 지난 시대의 물리적 나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지금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니 정신도 그런 젊은 폐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현재 몽고·필리핀·월남 등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이 우리나라(특히 농촌)에 이민으로 들어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그 자녀를 합하면 한국 내에 10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다민족·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풀어갈 지를 놓고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지나가면 장래 한국에서도 조승희 사건 같은 비극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와 식사를 끝내고 풍성한 경품을 타가는 다양한 게임

과 춤 노래 이 날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손계옥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부 행사에서 동문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즐기고 있다

휴스턴 동창회 동문가족 흥겨운 댄스파티

휴스턴 동창회(회장 박홍우, 공대 76)가 지난 12월 26일 서울가든에서 80여 명의 동문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0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교가제창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1부 공식행사와 2부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09년 결산 보고와 2010년 새 회장 추천 및 선출이 있었는데 새 회장으로 현 회장이 연임되었고 부회장 윤순금, 총무이사 구자동, 섭외이사 허재호, 재무이사 정유진 동문이 선임됐다

2부 행사에서는 브레이크 댄스강습과 노래와 춤 경연이 준비되어 참석한 동문들이 시종일관 흥겨운 파티 타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10여 명의 동문 자녀들이 동참

하여 별도로 마련된 댄스룸에서 힙합·브레이크 댄스 등 다양한 댄스를 배우기도 했다.

행사후 동창회 이사회장 조시호 동문(문리대 59)은 행사 준비에 힘써 준 동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한편, "새해 휴스턴 동문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동문회장 박홍우>



인종 분포에 대해 심도있는 강연으로 큰 감명을 주었다.

광 교수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자체를 다시 바라보고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자기 나이 계산법을 소개했다.

즉 "우리는 평균 50-60을 살던 시대에서 벗어나 80-100을

행사의 흥겨운 시간을 만끽했다.

<정홍택>

↑모교 광금주 교수가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도전'을 주제로 재미있는 강연을 펼쳐고 있다.

지역 동창회 소식

시카고·온타리오



시카고 동창회 임원들이 이영우 신임회장 덕에서 임원회의를 마친뒤 한 장면 '찰칵' 했다

시카고 동창회

신임회장덕에서 임원회의

미대 전시회·자녀교육 세미나 등 행사개발

지난 1월 9일 이영우 신임회장덕에서 Chicago 지역 동창회 친구 회장단 인수인계를 위한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 날 동문 임원들은 부부를 포함하여 40여 명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가운데 신년 인사를 나누는 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영우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노영일 전 회장의 결산보고가 있었다.

노영일 전 회장은 2009년도 결산보고에서 "일반예산으로 잉여금이 3천235 달러" 라고 밝혔다.

임원회의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앞으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3월 1차 이사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올해인 2010년에는 총액이 1만2천500 달러가 되는 셈이다.

임원회의에서는 Membership Committee가 새로 신설됐는데 연경자 동문이 "앞으로 숨은 동문, 젊은 동문을 계속해서 발굴할 것" 을 강조했다.

이영우 회장은 "기존의 계속 해온 동창회 행사 외에도 새로운 행사의 개발로 미대 동문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공동 관심사인 지혜로운 자녀교육 Seminar 를 춘계행사로 계획중" 이라고 밝혔다.

이 날 마지막으로 노영일·전현일 동문에 대한 생일 Cake Cutting 으로 회의를 마쳤다.

또한 이 날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노영일 전 회장의 노고를 칭송하는 의미에서 서산대사 휴정스님의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시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야설(野雪)’
서산대사(西山大師)

답설야중기(踏雪野中去)하야
불수호관행(不須胡亂行)이라
금일야행적(今日我行跡)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이라

‘골든클럽’ 신년 하례회
새해 계획 등 세부일정 협의

시카고 지역 서울대 골든 클럽이 신년 하례회 겸 첫 모임을 1월 7일 알링턴 하이츠 소재 Elly's Pancake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이 날은 박영규 신임 회장(농대 57입·사진 왼쪽)의 임기가 시작되는 모임이라 폭설에도 불구하고 약 20명의 동문 부부가 모여 신년 인사를 교환하고 골든 클럽의 새해 활동계획을 토의했다.

박 회장은 "지난 연말 55명의 회원(65세 이상 동문)이 등록하고 매월 첫 목요일 아침 월례모임을 갖도록 기반을 닦은 데 이어 새 해에는 월례 모임에서 회원들의 취미와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데 더욱 배려하겠다" 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역대 회장(강수상·이용락·한상호 동문)들 및 조대현 차기 회장 등 회장단 자문들과 정기 세미나의 주제와 횡수를 협의하며 여행과 취미활동을 위해 간사들을 위촉, 그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 회원들은 재담을 나누며 올해의 여행 계획 등에 대해 토의했다.

시카고 골든 클럽의 신년 임원은 ▶부회장 노재욱 ▶총무 임현제 ▶재무 박창만 ▶친교 최길용 간사들은 유임하고 신임 간사로 ▶박연희(해외 여행 담당) ▶김정주(지역 여행 담당) ▶이윤모(세미나 담당) ▶이승자(동창회 섭외 담당) ▶정호(홍보 및 기술 담당) 동문들이 새로 제임을 맡았다.

금년의 여행 계획에 관해 워싱턴 지역 서울대 여행 동아리가 추진하고 있는 북유럽 및 러시아 여행 일정(5월 16-27일)과 미주 의대동창회에서 추진중인 북유럽 및 러시아 여행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나 시카고 골든 클럽이 추진해온 계획은 방문지역이 다르고 일정과 인원 규모면에서 타 지역의 여행 계획에 합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8월로 예정된 시카고 골든 클럽 본래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기로 했다.



"눈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러이 걸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온타리오 동창회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던 지난 해 11월 14일 온타리오 주 동창회의 가장 큰 모임인 '서울대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2007년부터 기존의 동창회 송년파티를 음악회·전시회·문학 발표회 등 동문 가족들의 문화행사로 변모시켜 온타리오 동포사회에 '진화하는 동창회' 의 모범으로 자리를 잡은 이 날 행사에도 200명이 넘는 동문가족들이 참석하여 성황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송순영 미주 동창회장을 비롯한 미주 동창회의 여러 동문들께서 참석하시어 더욱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동창회 정기총회' 를 겸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신임 회장 및 간사 등 신임 임원진에 대한 선거도 이뤄졌다.

이 날 선출 및 선임된 동창회의 신임 회장단 및 간사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한성택(약대 58)
- ▶부회장=김학성(농대 58)
- ▶부회장=오성규(약대 70)
- ▶부회장=이영준(공대 71)
- ▶부회장=임병연(약대 72)
- ▶부회장=김동호(음대 76)
- ▶총무간사=

- 정영진(문리 84)
- ▶재무간사=김영제(약대 73)
- ▶홍보간사=이현근(문리 86)
- ▶YB간사=한찬규(농대 82)
- 평의원
- ▶한성택 ▶이승찬 ▶김학성
- ▶이영준 ▶정영진
- <홍보간사 이현근>

↓이승찬 전 회장과 한성택 신임 회장이 교기를 인수인계하고 있다



↓시카고 동창회 임원들이 안전에 대해 열심히 토의하고 있다



미 동문동정

금혼·대잇기

나수섭·오혜현 동문 백년가약 50주년 '빛나는 금혼식'

나수섭(의대 50졸)·오혜현(약대 55입) 동문 부부가 결혼 50주년(Golden Anniversary) 기념식을 11월21일 볼티모어의 Martin's West에서 가졌다.

나수섭 동문은 1945년 평양 제1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 김일성대학 의학부 2학년 수료 후 월남해 195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공군 전투비행대 군의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1955년2월 USC-Los Angeles County General Hospital에 내과 수련의로

도미했다가 1958년 3월 귀국해 가톨릭대 의대 내과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그 때 함흥 출신이며 1959년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오혜현 동문을 만나

1959년 11월29일 서울에서 결혼했다.

결혼 후 나 동문은 10년간 가톨릭대 의대 교수로 생활하다가 1969년 1월 미국에 와 뉴저지와 미시간 주에서 다시 내과학과 종양학(Medical Oncology) 분야에서 5

년에 걸치는 수련을 마치고 46세에 오하이오 Canton 에서 전인 개인 시술을 시작했다.

그 동안 1983년 미 내과학회서 기록적으로 55세에 내과 전문의 보드 자격을 취득했으며 1998년 은퇴해 지금은 볼티모어에서 파트 타임으로 institutional practice를 계속하고 있다.

장남 John(준호)은 BA·MBA·CFA로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Ellicott City, MD)

Ph.D.로 Emory대 의대 신경학과(Neurology)교수, Alzheimer's Disease Research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딸 Joyce(희선)은 Germantown (MD)에 거주하고 있다.

나 동문 부부가 금혼식 자리에서 한 인사말(한글과 영어)을 소개한다.

"저희는 결혼 후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40년을 살아 왔습

니다. 50년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뭔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는 한 세대 이상 젊은 사람들과 1대 1의 활인없는 경쟁 사회 미국의 삶을 용케 지탱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뇌(苦惱)의 학교, 고해(苦海)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은 각자 특이한 어떤 직물(fabric)을 짜 올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고뇌라는 이름의 어떤 아름다운 색채의 실오라기가 있기에 예쁜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뇌가 없다면 어찌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웃음 안에 살다가 웃음 띠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웃는 얼굴이란 사람을 얼마나 예쁘게 보여 주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또 하나의 졸업장을 받는 듯한 마음도 듭니다. 미국 사람들은 졸업을 또 하나의 시작이라 하여 'Commencement' 라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야 알게 된 이 단어를 저희는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자리를 뭔가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한 전기로 삼으려 합니다."



↑나수섭·오혜현 동문이 결혼 50주년 금혼식 축하연에서 함께 와인 잔을 들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UC버클리 졸업식장에서 제인 김(가운데)이 모친 김미양씨와 부친 김광호 동문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김광호 동문 '3대째 법조인' 이어

장녀 제인 김 변호사 합격

김광호 동문(키스 프로덕트 상무)의 장녀 제인 김(32)이 지난 해 11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할아버지부터 3대째 법조인 가업을 이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 출생의 제인 김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UC버클리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인 김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민권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불법 체류자와 극빈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06년 샌프란시스코 최연소 교육위원에 당선된 바도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임기 4년이 끝나는 올해 샌프란시스코 시 의원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그녀의 조부 김중수씨는 법학박사로 한국에서 대검찰청 검사와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또 부친 김광호 동문은 뉴욕 켄즈 검찰청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는 키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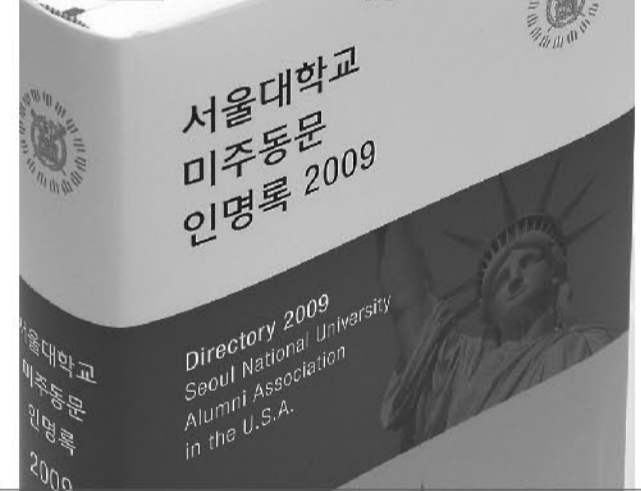
에서 법률 및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다. 키스사는 네일 재료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대기업체다.

한편 제인 김의 모친 김미양씨는 한의사로 현재 뉴저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UC버클리 졸업식장에서 제인 김(가운데)이 모친 김미양씨와 부친 김광호 동문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주 인명록 구입 안내



기부금
미국 거주 동문: \$55 (우송료 포함)
수표 보내실 곳:
SNAUSA (발전기금 위원회)
131 West 35th St. (New York Golf Bldg.)
New York, NY 10001
Tel. (917) 514-1939, (917) 494-0223
Email: snuausa@gmail.com

캐나다 거주 동문: 온타리오 동창회로 문의
Tel. (647) 346-2405

동창회비·우원금·광고비 납부 연왕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미주 동창회 10대 회장단(시카고) 본부의 영수 기록임

동창회비 2009/2010 회계년도

Alaska 윤제중 (농대 55)	김영기 (의대 54) 김영덕 (법대 58) 김영배 (미대) 김영석(문리대54) 김영옥(간호대 69) 김영춘(수의대64) 김영환 (법대54) 김영희(생활대69) 김용채 () 김원경 (약대59) 김유갑 (약대51) 김은희 () 김익창 (의대49) 김일영 (의대65) 김재무 (상대58) 김정복 (사대55) 김정빈 (공대66) 김정애(간호대69) 김정화 (미대63) 김종일 (상대) 김종표 (법대58) 김준일 (공대62) 김지익 (의대45) 김진호 (약대64) 김창무 (음대50) 김태용 (의대57) 김태운 (법대53) 김현호(문리대59) 김희재 (사대66) 나두섭 (의대66) 남장우 (사대56) 노명호 (공대61) 노상규 (공대60) 노제민 () 문병하 (법대51) 문인일 (공대51) 민병근 () 민병완 (약대68) 민영기 (치대61) 박현 (상대68) 박경화(문리대46) 박국중 (법대57) 박동훈 () 박성민 (의대58) 박영옥 (사대55) 박우성 (상대77) 박원준 (공대53) 박희순 (상대53) 박인하 (치대56)	박제인 (약대60) 박종성 (법대 53) 박종수(수의대58) 박종식 (의대48) 박진득 (농대67) 박찬호(자연대81) 박창선 (공대55) 박취서 (약대60) 박태호 (치대66) 박형철 (사대72) 방명진 (공대73) 배효식 () 백성용 (사대52) 부영부 (치대70) 서승열 (공대59) 서치원 (공대69) 선우원근(공대66) 성락호 (치대63) 손남수 (미대60) 손학식 (공대61) 송은섭 (상대69) 송준섭 (농대65) 송원표(수의대73) 신광재 (공대73) 신대식 (상대60) 신동국(수의대76) 신영규 (의대57) 신영수 (상대70) 신용규(문리대61) 신우천 (치대67) 신정수(간호대54) 신정연 (미대61) 신희정 (미대73) 안병일 (의대63) 안현중 (음대56) 양광주(문리대58) 양승문 (공대65) 양은석 (음대70) 양창효 (상대54) 양태준 (상대56) 염동해 (농대74) 오명주(간호대77) 오양숙(간호대60) 오찬수 (약대57) 우옥자(간호대60) 원미량 (미대65) 유석홍 (상대61) 유희영(문리대56) 유재환 (상대67)	유진형 (상대47) 유창호 (약대74) 유현순(간호대69) 윤석철 (상대60) 윤용길 (공대55) 윤장희 (상대83) 윤흥기 (의대58) 윤희성 (치대65) 이선 (의대42) 이강원(인문대76) 이경수(수의대73) 이근설 (상대56) 이근호 (공대46) 이기재 (사대62) 이기준 (법대54) 이길자 (음대57) 이난경 (음대66) 이동섭 (사대36) 이병규 (미대73) 이병희(간호대67) 이병주 (치대70) 이상문 (의대52) 이성용 (음대58) 이승훈 (상대74) 이양구 (상대57) 이영송 (치대63) 이영식 (농대58) 이영희(간호대77) 이우근 (음대46) 이은희 (의대48) 이재권 (법대56) 이재룡 (공대71) 이정열(간호대68) 이정옥(생활대71) 이종걸 (상대53) 이종보(간호대69) 이준식 (의대61) 이준호 (상대65) 이중열 (공대69) 이체진(문리대) 이필연 (보대원65) 이혜영 (공대56) 이혜란 (미대) 이홍표 (의대58) 이화숙(간호대67) 임동호 (약대55) 임승쾌(문리대66) 임용오 (의대57) 임정란 (음대76)	임진한 (치대68) 임춘수 (의대57) 임희영 (치대69) 장준 (인문대85) 장정구 (미대67) 장기창 (공대56) 장동식(문리대66) 장진성 (약대66) 전낙관 (사대60) 전병련 (공대54) 전호선(수의대67) 전화자 (음대60) 전희택 (의대58) 정 황 (공대64) 정규남 (공대52) 정동구 (공대57) 정동식 (공대57) 정두호 (공대64) 정복근 (사대69) 정수만 (의대66) 정원훈 (상대38) 정인덕(보대원64) 정인환 (법대54) 정재형 (약대55) 정진수 (공대56) 정창희 (법대54) 정태무 (사대44) 정현진(간호대68) 제영혜(생활대71) 조상하 (치대64) 조상하 (치대64) 조재길 (사대61) 조종용 (공대45) 조태복 (사대60) 조태준(문리대59) 주수봉 (공대67) 진희섭(문리대50) 차기민 (공대85) 채희원 () 최경복(간호대69) 최경자 (약대63) 최덕순(간호대59) 최복영 (사대56) 최승륜 (상대53) 최영순(간호대69) 최왕욱 (공대69) 최용환 (공대57) 최인용(문리대65) 최대근 (법대48) 최홍수(자연대87)	탁혜숙 (음대67) 하기환 (공대66) 하상원(대학원90) 한종철 (치대62) 한태호(인문대75) 허영진(문리대61) 현원영 (사대45) 홍병익 (공대68) 황동하 (의대65) 황만익 (사대59) 황석우 (의대53) 황정식 (사대54)	오경호 (농대60) 임수암 (공대62) 임한용 (공대60) 정경근 (농대59) 정인태 (의대58)	Hawaii 림양수 (사대62) 박장부 (의대61) 유재호(문리대57) 윤상철 (약대47)	Illinois 강영국(수의대67) 강창만 (의대58) 계훈택 (의대55) 고병철 (법대55) 곽영로(수의대72) 구경희 (의대59) 권호연(문리대57) 김갑중 (의대57) 김광철 (사대47) 김길중 (의대59) 김사직 (상대59) 김선철 (의대58) 김영호 (의대71) 김용성 (상대54) 김용우 (공대58) 김용주 (공대73) 김윤범 (의대54) 김일훈 (의대51) 김재환 (사대72) 김경주(문리대60) 김현주(문리대61) 노영일 (의대62) 문병훈 (사대47) 문탁영(문리대55) 박 숙 (의대64) 박영규 (농대57) 박인숙 (미대69) 반용근 (의대53) 배영섭 (의대54) 서상현 (의대65) 소진문 (치대58) 송재현 (의대46) 신석균(문리대54) 안은식(문리대55) 양승표(문리대57) 양흥미 (약대63)	오기창 (법대50) 오명자(간호대60) 윤효정 (사대87) 이광선 (의대59) 이덕수(문리대58) 이동균 (공대75) 이병희 (상대52) 이소희 (의대61) 이승자 (사대60) 이용락 (공대48) 이윤모 (농대57) 이정일 (농대57) 이진주(문리대55) 이춘우 (치대54) 임이섭 (미대54) 임현재 (의대59) 장기남(문리대62) 장시경 (약대58) 장윤일 (공대60) 장은숙(문리대53) 전현일 (농대62) 전호 (공대62) 정광훈 (공대60) 정병욱 (의대53) 정승규 (공대60) 정영숙 (사대59) 정치희(문리대59) 조 철 (공대49) 조대현 (공대57) 조중행 (의대63) 조형원 (약대50) 지예자 (미대65) 진판보 (의대72) 진보린 (약대56) 최길용(문리대57) 최순분(간호대57) 최순용(문리대61) 최애옥(간호대47) 최의필 (의대53) 최해숙 (의대53) 최호승 (사대58) 최희수(문리대67) 한희일 (공대62) 한재은 (의대59) 함성택(문리대55)
------------------------------	---	---	---	--	---	---	--	--	--

###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75
2010. 7. 1.- 2011. 6. 30. \$75

관의 후원금

\$200	\$200+	\$500	\$1,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신 **모교발전기금** **지부 분담금**
 \$3,000 [백만원기금]

작성일: 년 월 일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_____ Card Holder Name: _____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Master Card

Card No.: _____ Security Code: _____ Exp. Date: _____

Signature: _____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동창회비-우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Indiana 김연화 (음대68) 김정숙 (약대51) 송순영(문리대52) 이종일 (의대65) 임영신 (의대54)	Maine 채도경 (의대59)	New Jersey 강석권 (법대61) 고영수 (미대57) 곽상준 (약대55) 곽선섭 (공대61) 권문용 (미대61) 기도석 (공대67) 김경애(간호대55) 김규화 (상대63) 김대연 (의대59) 김동진 (사대67) 김명철 (공대60) 김봉희 (공대69) 김세환 (공대65) 김양호 (의대51) 김연석 (상대54) 김영애 (사대56) 김영일 (약대58) 김영진(문리대50) 김영철 (의대55) 김옥현 (의대59) 김은섭 (의대53) 김자익 (의대69) 김중석(문리대55) 김한중 (의대56) 김훈일 (공대60) 박정원 (미대66) 박대규 (사대55) 박성일 (상대58) 박성호 (공대57) 박은규 (약대72) 박익수 (사대52) 박태호 (상대76) 배명애(간호대47) 서정용 (약대63) 손광호 (의대59) 송기인 (의대60) 오용호 (의대66) 유호근(문리대71) 윤갑식 (공대53) 윤순철 (사대44) 윤준식 (법대58) 윤현남 () 이경림 (상대64) 이능서 (의대57) 이분휘(문리대54) 이유찬 (의대58) 이재원 (법대60) 이종석 (상대57) 정순기(문리대69) 정준영(문리대67) 주선후 (음대54) 최영태(문리대67) 최원로 (의대42) 최준희 (의대58) 최휘웅(문리대61)	Nevada 이관 (공대55) 최영식 (법대59)	New York 강영선 (공대50) 계동휘 (치대67) 곽승용 (의대65) 권영국 (상대60) 권영대 (공대69) 김동진 (약대56) 김명승 (상대65) 김문경 (약대61) 김석식 (의대58) 김석자 (음대61) 김성진 (공대56) 김성호 (공대71) 김영배 (공대78) 김용술 (상대56) 김용연(문리대63) 김용학 (법대70) 김우영 (상대60) 김은태 (의대46) 김종원 (사대58) 김종출 (사대51) 김창수 (약대64) 김창수 (상대65) 김혜암 (의대58) 김현중 (공대63) 김형찬 (약대54) 노용민 (의대49) 라홍채 (공대62) 민발식 (의대60) 박수안 (의대59) 박순영 (법대56) 박정식 (사대59) 박현성 (약대60) 배상규 (약대61) 서정애 (음대67) 서상철 (의대49) 성기로 (약대57) 송영순 (사대60) 신남철 () 안재현 (상대62) 양거영 (의대49) 양금자 (미대69) 양세관(경영대원66) 오인환 (의대67) 유광현 (의대58) 유재섭 (공대65)	Ohio 김운성 (의대63) 김한교(문리대47) 김현왕 (공대64)	Oklahoma 김정숙(생활대70) 이상강 (의대70)	Oregon 김상만 (음대46) 김상순 (상대67) 김영자(간호대53) 성성모 (사대67) 최근녕 (법대63) 최동근(문리대50) 한영준 (사대60)	Pennsylvania 강영배 (농대59) 김국간 (치대64) 조대영 (공대61) 조숙자(간호대59) 조중수 (공대64) 조태환 () 조환관 (치대65) 차국만 (상대56) 천병수 (공대70) 최구진 (약대54) 최석진 (사대54) 최수용 (상대55) 최영혜(간호대64) 최일단 (미대55) 최태식 (의대69) 최한용 (농대58) 최형무 (법대69) 한승신 (의대70) 한영수 (의대61) 한용진 (미대55) 한용호 (법대48) 한호 () 허병렬 (사대42) 홍선경 (의대58) 황분하(수의대76)	Rhode Island 오세자(인문대71)	Tennessee 용준식 (의대48)	Texas 곽노환(문리대48) 곽용길(문리대59) 김기준 (공대61) 김영옥(가정대74) 김영창 () 김의신 (의대60) 김정훈 (공대46) 김진만 (공대57) 김현정(간호대70) 맹인성 (공대50) 박민자 (사대58) 박석규(간호대59) 박영규 (사대66) 유길선 (농대73) 유세만 (공대59) 이규진 (약대60) 이길영(문리대59) 전중희 (공대56) 정철률 (의대55) 조시호(문리대59) 조진태(문리대57) 진기주 (상대60) 최성호(문리대58) 최용천 (의대53) 탁순덕 (사대57) 황의찬 (사대76)	Washington 구분영 (공대65) 김영일 (공대53) 김윤국(문리대49) 김재현 (공대72) 김철호 (상대68) 박종수 (공대74) 박진수 (의대56) 변종혜 (법대58) 송준 (공대55) 신창범 (법대73) 양용관(수의대62) 유성열 (공대72) 이경희 (약대82) 이대원 (사대58) 이순모 (공대63) 이종성 (의대58) 이창렬 () 홍계인 (음대60) 황재규 (공대54)	Wisconsin 김영화(문리대65) 이영균 (의대61) 장홍 (문리대61) 장세곤 (의대57) 전장호 (공대55)	West Virginia 정약훈 (의대47)
--	----------------------------	--	--	---	---	---	---	--	-----------------------------------	--------------------------------	---	---	--	------------------------------------

동창회비 2010/2011 회계년도

Alaska 윤계중 (농대55)	Arizona 지영환 (의대59)	California 강정훈 (미대56) 강희창 (공대57) 권영덕 (공대54) 김석홍 (법대59) 김은희 () 김익창 (의대49) 김정빈 (공대66) 남장우 (사대56) 노제민 () 박종성 (법대53) 박종수(수의대58)	Delaware 배성호 (의대65)	Florida 윤홍철 (의대56) 오석일 (의대64)	Georgia 김용건(문리대48)	Hawaii 박장부 (의대61)	Illinois 김사직 (상대59) 김제환 (사대72) 신석균(문리대54)	Maryland 김종호 (약대68) 박명영 (의대68) 안창호 (약대70)	Michigan 남상용 (공대52) 유효명 (의대58)	Minnesota 김권식 (공대61)	N. Carolina 이석형 (사대56)	New Jersey 김한중 (의대56) 박성일 (상대58) 박태호 (상대76) 윤현남 () 이분휘(문리대54) 이유찬 (의대58) 이재원 (법대60) 한인섭 (약대)	New York 곽승용 (의대65) 김병숙(보대원64) 김승호 (공대71) 노용민 (의대49) 박수안 (의대59) 양금자 (미대69) 이희경 (의대55) 최영혜(간호대64) 한승신 (의대70) 한승원 (미대60) 한용진 (미대55) 황분하(수의대76)	Ohio 김운성 (의대63) 송용덕 (의대57) 최인갑 (공대57)	Oregon 최근녕 (법대63)	Pennsylvania 김용국 (의대58) 김주진 (법대54) 이성숙(생활대74) 전희곤 (의대54)	Texas 김기준 (공대60) 박민자 (사대58) 조시호(문리대59)	Virginia 김기봉 (공대63) 박용걸 (약대56)	Washington 신창범 (법대73)	Wisconsin 이영균 (의대61)
-----------------------------	------------------------------	---	-------------------------------	--	------------------------------	-----------------------------	---	---	---	--------------------------------	----------------------------------	---	---	---	-----------------------------	---	--	---	---------------------------------	--------------------------------

동생의비-후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기타 후원회비 및 기금 납부 현황

관악 후원금

Arizona

박양제 (약대48)
지영환 (의대59)

California

권대원(경대원59)
권영조 (의대57)
김낙구 (상대67)
김동산 (법대59)
김동석 (음대64)
김병연 (공대68)
김영석(분리대54)
김은중 (상대59)
김종표 (법대58)
나정자(간호대70)
박국중 (법대57)
박임하 (치대56)
염동해 (농대74)
원미량 (미대65)
유의영(분리대56)
유재환 (상대67)
유창호 (약대74)
이병무 (치대70)
이병준 (상대55)
이승훈 (상대74)
이화숙(간호대67)
임낙균 (약대64)
임동호 (약대55)
임용오 (의대57)
임춘수 (의대57)
장준 (인문대85)
장진성 (약대66)
전호선(수의대67)
전희택 (의대58)
정원훈 (상대38)
정창희 (법대54)

조재길 (사대61)
최용환 (공대57)
현원영 (사대45)
황만익 (사대59)

Connecticut

김기훈 (상대52)
라찬국 (의대58)

Delaware

배성호 (의대65)

Florida

전웅상 (공대46)
정구영 (의대50)

Georgia

김용건(분리대48)
문종현 ()
주중광 (약대60)
허지영(분리대66)

Hawaii

김창원 (공대49)

Illinois

강창만 (의대58)
구경희 (의대59)
김길중 (의대59)
김영호 (의대71)
김윤범 (의대54)
김윤태 (의대63)
김재환 (사대72)
김정주 (분리대60)
노영일 (의대62)
분병훈 (사대47)
박영규 (농대57)
반용균 (의대53)
서상현 (의대65)

양홍미 (약대63)
오기창 (법대50)
윤효정 (사대87)
이광선 (의대59)
이승자 (사대60)
이용락 (공대48)
이윤모 (농대57)
임현재 (의대59)
장기남(분리대62)
전현일 (농대62)
정병욱 (의대53)
정승규 (공대60)
조대현 (공대57)
조중형 (의대63)
진관보 (의대72)
최희수(분리대67)
한재은 (의대59)

Indiana

김연화 (음대68)
김태기 (의대62)

Massachusetts

김제호 (상대56)
이희규 (공대69)

Maryland

강길종 (약대69)
권철수 (의대68)
김종호 (약대68)
김창호 (법대56)
오인환(분리대63)
이태영 (법대60)
이항열 (법대57)
전경철 (공대55)

Michigan

오동환 (의대65)
차대양 (공대55)

Minnesota

김태환 (의대58)
황규현 (의대56)

New Jersey

권문웅 (미대61)
기도석 (공대67)
김봉희 (공대69)
김연석 (상대54)
김영일 (약대58)
김자역 (의대69)
박정원 (미대66)
박승원 (공대50)
신정윤 (공대60)
윤갑식 (공대53)
윤현남 ()
이경림 (상대64)
이문희(분리대54)
정준영(분리대67)
최희웅(분리대61)
허선행 (의대58)
홍사만(분리대61)

Nevada

김용재 (의대60)

New York

권영국 (상대60)
권영대 (공대69)
김명승 (상대65)
김병숙(보대원64)
김승호 (공대71)
김영배 (공대78)
김용연(분리대63)
김용학 (법대70)
김종욱 (사대51)
김창수 (약대64)
박준희(인문대86)
성기호 (약대57)
이근수 (상대64)
이준행 (공대48)
최구진 (약대54)
최수용 (상대55)

최한용 (농대58)
최형무 (법대69)

Ohio

김윤성 (의대63)
최인갑 (공대57)

Oklahoma

김정숙(생활대70)
이상장 (의대70)

Oregon

김상순 (상대67)

Pennsylvania

김국간 (치대64)
김주진 (법대54)
서중민 (공대64)
손재욱(가정대77)
이지훈 (미대)
정정수 (의대56)
현재원 (공대60)

Texas

김정훈 (공대46)
맹인성 (공대50)
조시호(분리대59)
황의찬 (사대76)

Virginia

김기봉 (공대63)
박용길 (약대56)
박윤수(분리대48)
박평일 (농대69)
이규섭 (상대68)
이내원 (사대58)
이연구 (미대60)
이영목 (공대59)
정원자 (농대62)

Washington

김성열 (치대61)

Wisconsin

김영화(분리대65)
이영균 (의대61)

광고비

California

강동순 (법대59)
김경무 (공대69)
김광철 (음대59)
김원철 (농대)
김재영 (농대62)
김종표 (법대58)
박준창 (인문대79)
서동영 (사대)
손학식 (공대61)
신대식 (상대60)
신혜원 (사대81)
원영배 (미대74)
이경희 (분리대57)
이근철 (상대56)
이명일 (약대72)
이춘배 (사대60)
이형교(교대원66)
임봉기 ()
장준 (인문대85)
정복근 (사대69)
조홍준 (상대65)
최준호 (치대58)

Illinois

김영호 (의대71)
김재환 (사대72)
심상구 (상대63)
이재희 (상대63)
이춘우 (치대54)

Maryland

이준영 (치대74)

New Jersey

김세환 (공대65)
김영취 (법대80)
오영식 (법대72)
이정림 (상대64)
최영태(분리대67)

New York

김광호(분리대62)
김명승 (상대65)
김영배 (공대78)
김용배(인문대77)
김용학 (법대70)
김창수 (약대64)
윤병하 (농대80)
이근수 (상대64)
조대영 (공대61)
한영수 (의대61)

Oregon

김상순 (상대67)

Pennsylvania

김국간 (치대64)
허창기 (약대67)

Texas

이운성(수의대81)
조시호(분리대59)

Virginia

박상근 (법대75)
이규섭 (상대68)

Washington

김성열 (치대61)
유성열 (공대72)

지부분담금

Ontario 동창회 300.00

Minnesota 동창회 800.00

Chicago 동창회 1,200.00

종신이사회비

California 1,500.00

특별후원금

Illinois
Chicago Golden Club 1,000.00

시카고 동창회 1,200.00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2,000.00

KOREA
임광수 회장 3,000.00

서울대 총장실 10,000.00

###

서울대 고국 동창회 및 서울대 미주 동창회 보조 지역 동창회 분담금 책정액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부 동창 회장님

서울대 본국 동창회 및 미주 동창회 보조 지부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책정 했습니다.

지부별 분담금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4대 오인석 회장께서 본국 서울대 총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 하고, 본국 동창회의 발전에 재미 동창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제안하여 제8차 평의원 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 보조 지부별 분담금은 재미 동창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 동창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평의원에서 가결, 현재 까지 실행되어 지난 수년 동안 지부 동창회에서는 책정된 금액을 본국 동창회와 재미 동창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8차 평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분담금 액수의 책정에 관해 그 후 제 17 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지역 동창회 부담금의 책정액을 미주 동창회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10대 회장단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분담금을 책정했음을 보도하며 각 지역 동창회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담금 보내실 곳: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번호	지역동창회	고국 동창회 보조	미주 동창회 보조
		미주 지역 동창회 분담금	미주 지역 동창회 분담금
		(2009~ 2010년)	(2009~ 2010년)
1	남가주	\$2,000	\$1,000
2	뉴욕	\$2,000	\$1,000
3	시카고	\$1,200	\$1,200
4	워싱턴DC	\$1,000	\$500
5	필라델피아	\$1,000	\$500
6	뉴잉글랜드	\$1,000	\$500
7	북가주 (SF)	\$800	\$400
8	샌디아고	\$350	\$200
9	휴스턴	\$350	\$200
10	델러스	\$350	\$200
11	플로리다		
12	하틀랜드	\$400	\$200
13	조지아	\$400	\$200
14	워싱턴주	\$400	\$200
15	오하이오	\$200	\$100
16	오레곤	\$200	\$100
17	미네소타	\$400	\$200
18	하와이	\$200	\$100
19	유 타	\$200	\$100
20	캐롤라이나	\$100	\$100
21	로키마운틴	\$200	\$100
22	애리조나	\$200	\$100
23	엘라스카		
24	온타리오	\$300	\$200
25	밴쿠버	\$200	\$100
26	앨버타		
	합계	\$13,450	\$7,500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컨설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강경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8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Heung W. Youn CPA, MBT
윤홍원 (환경대학원 85)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 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만연(상대 58) ◦ (818) 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한인캐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The Westar Group

리테일러

윤장희(상대 83) ◦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 (714) 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리테일러/리퀘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 (310) 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e CA 90250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리테일러/식품점
Sammy Mart
라철상(문리대 64) ◦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CKL (수출입)
김순길(문리대 61) ◦ (213) 488-1750
110E. 9th St., #A404 Los Angeles CA 90079

무역/전자제품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 (818) 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6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무역/안과용 기기 및 약품
Youngin(USA) Inc.
이영수(상대 60) ◦ (626) 448-3039
11100 Valley Blvd. #125, El Monte CA 91731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중개업

럭키부동산 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213) 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lley, CA 92553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Pest Control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수의사/동물병원

Valley Lyons Pet Hosp.
권대삼(수의대 73) (661) 254-6680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74)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현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관광/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희(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Vii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8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장기열 치과
* 장기열(치대 55) (232) 930-1744
402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송은성 치과
송은성(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오(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권중건 교정 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의료/내과/전문의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홍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의료/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의료/방사선과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재생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미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제조업/건강과 자연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교회/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트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종교/교회 지위자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한방의원/한약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상(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샌디에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voq St. San Diego CA 92111

수이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둘이하나 결혼정보
5년전에 설립하여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자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 자녀 특별 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80
2910 Telegraph Avenue, Sui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이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의/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한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현(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 / 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

Drivetech,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Website: www.hanstravel.com

해보라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의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939-2811
711 W. 40 St. Roun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8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테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강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엄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mm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의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e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무역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Sang Chin Yorn,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a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8

상당/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당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희(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서비스/잠금장치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이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Kiss logo and product image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 19차 평의원회
장소: Marriott Resort Lincolnshire, IL
Tel: (847) 634-0100
날자: 6월 11, 12, 13일, 2010

Dai M. Lim, M.D.P.C.
임대욱(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필(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웅(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8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2010년 1월 Vol 189

OK

하틀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건축/시공.설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공인 회계사

정덕준 공인회계사

* 정덕준(상대 63) (215) 646-8830
1120 Ramsey Dr., Blue Bell, PA 19422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재정 설계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리테일러/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이사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목(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확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215) 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TX

휴스턴

Farmers Insurance
곽웅길(문리 59) (915) 227-8317
1240 Blalock #120 Houston TX 77055

수이사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281) 531-9095
1366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사

한국 장 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 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 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 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253) 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l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 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동문 외보 업소록 광고 문익는
전화 (224) 548-2148로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교과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욱(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용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주필 : 이윤모(농)

편집위원 : 고병철(법)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편집장 : 이기준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옥길권(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지부 회의회장단

지역	회장단	이름 및 연락처
남가주	회장	제영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차기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임승패(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뉴욕	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 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iminc@ao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옥(가정 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차기회장	조 화연(음대 64입) 610-490-5335 robertwc@juno.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운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트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플로리다	회장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로키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차기회장	오덕겸(의대 58입) jindori@cox.net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알래스카	회장	장근유(미대 58입) 907-748-0067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경(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정도(한글 약 5천자, 1천 단어)입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u.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u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 건설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곧 개선될 것이므로 동문들의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ua.org/>

제 19차 평의원 시카고 회의에 소청합니다.

장소: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ive, Lincolnshire, IL 60069
Tel: (847) 634-0100
날짜: June 11, 12, 13, 2010



6월 11일 (금요일)
3:00 - 5:00 pm Check in, 등록 및 접수
6:00 - 10:00 pm 초빙 강사 강연 및 토론회

6월 12일 (토요일)
9:00 - 5:00 pm 19차 평의원 회의
6:30 - 7:30 pm Reception, Cocktail
8:00 - 10:00 pm 평의원, 총장, 동창회장 시카고 동창회 환영 디너

6월 13일 (일요일)
8:00 am - 12:00 pm Check out
11:00am - 5:00 pm 19차 평의원 회의 환영 골프 대회
6:00 pm - 10:00 pm 골프 대회 시상식 및 디너

샤프 여행사 광고

모교 발전기금 광고

선배님 함께
해 주세요